

중국을 주께로

제 9 호
1990.
11 / 12

你們要去，使萬民作我的門徒，奉父子聖靈的名，給他們施洗。凡我所吩咐你們的，都教訓他們遵守。我就常與你們同在，直到世界的末了（馬太福音 28 章 19~20 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 장 19~20 절)



(중국 단동교회)

中國語文宣教會

제3기 “선교중국어연수”

개강: 1991. 1. 7 (8주간 16회강의)

“중국선교”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크신 사명입니다. 중국 선교의 일선에 나서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데 깊이 헌신하여야 합니다. 언어는 마음에 도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선교에 초점을 맞춘 언어훈련코스를 세번째로 개설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선교사역에 헌신하여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연수내용 ■

1. 초급A코스

-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
- 교재: 초급중국어1(한국방송통신대학 교재)과 오디오, 비디오강의
- 강사: 박성주 빈미정
-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00 - 9:00

2. 중급A코스

- 중국어의 발음과 기본문형을 이미 학습한 수준
- 교재: 주교재/『飛行屋』(복음비디오영상교재) 『中國文化20講』
부교재/『使徒信經, 主祈禱文 外』 『經文背誦』 『중국어찬송가』
- 강사: 이석형 김성곤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00 - 9:00

3. 중급B코스

- 중급A코스를 수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
- 교재: 주교재/『睡夢鄉』(복음오디오교재) 『中國文化20講』
부교재/『經文背誦』 『중국어찬송가』
- 강사: 양승훈 이홍자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00 - 9:00

※ 강의회수는 주 2회로 총 16회 실시되며 매주 과제가 부여됩니다.

※ 매회마다 강의시간을 다음과 같이 배분합니다.

7:00-7:30 중국어찬양(15분)출석점검(2분)사도신경(1분)요절암송(12분)

7:30-8:50 강의

8:50-9:00 중국어찬양(6분)합심기도(3분)주기도문(1분)강의끝

- 모집대상: 1. 중국선교에 소명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크리스찬 형제자매
2. 신학생 및 각 대학 크리스찬 중문학도
3. 중국어문선교회 전회원

● 모집인원: 매반 각 20명씩

● 연수장소: 중국어문선교회(사정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참가비: 6만원(교재대·테이프대는 별도) 접수/개강 당일

- 등록방법: 1.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전화로 신청접수(90. 12. 21까지)
2. 1월 7일 오후 6:30까지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입학원서를 작성. 중급A, B코스의 희망자는 간단한 필답고사 실시 후 반편성. 준비물-반명합판 사진1매

● 기타: 본 연수과정을 이수한 분에게는 본 선교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수여 및 상급코스의 연수에 참가할 자격 부여.

● 신청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2호)

TEL. 5 9 4 - 8 0 3 8

중 국 어 문 선 교 회

차 례

중국 선교 일선에 서서 (김한성)	/ 1
말씀 묵상 / 荒漠甘泉 (단 12:12)	/ 2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방선기)	/ 4
중국선교 현지사역보고 (장규대)	/ 6
중국기독교인물소전 (黃品三)	/ 8
특집 / 방한 중국교포 선교	
○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김용배)	/ 11
○ 중국선교 우리 곁에 와 있다 (전덕용)	/ 14
○ 行商석달 …… 씩씩한 「빈손 歸鄉」	/ 16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Ⅱ	/ 18
중국어로 찬양을 (和散那)	/ 23
양 우리의 비유 (중국어 성경공부)	/ 24
큰 능력의 근원 (야지신학원 학생의 간증)	/ 26
최근 중국 동향	/ 28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강정애)	/ 32
대만 기독정병훈련을 다녀와서 (이민선)	/ 34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 활동상황	/ 38
중국어문선교회 각 부서 활동보고	/ 39
기도 편지	/ 41

중국선교 일선에 서서



김 한 성 (연구부 간사)

제가 宣教一言이라는 부담스러운 글의 필자로 선정되고 나서 막상 몇 자 적으려 하니 아는 바도 없고 감히 거짓말로 자신을 뽑내는 것이 마땅치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중국 선교 일선에서 있는 연구원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선교에 대하여 약간이나마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고 또 그것은 가장 제격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어느 지역의 어떠한 선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상사람들을 통하여 선교가 진행이 되며 중국선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선교를 지망하는데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저는 선교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를 충고하고 싶습니다. 선교일선에서는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체휼할 수 있어야 하고(벧전3:8),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참으신 것을(히12:3) 따르고자 하는 온유한 인격이 요구됩니다. 저는 지난번 '창의적 접근지역 세미나'에서 선교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소가 다른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발생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역자들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 속에서는 아무런 인격적인 무뎠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곳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의 모난 성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덕을 가렸고 형제자매의 가슴에 큰 못을 박은 일이 있었는데, 나 자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 가장 고통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을 쌓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선교는 바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중국선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한 선교는 한국에

오신 사할린교포선교였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중국으로 가서 선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교포선교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다른 선교회로부터 사할린교포를 위한 선교관광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을 때 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이를 시행하여 조그마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선교관광을 돕는 과정에서 쌓인 자신감과 경험은 중국교포가 약을 팔기 위해 덕수궁근처로 모여들었을 때 중국교포선교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규모를 갖추지 않는 이런 선교라면 개개인 이라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중국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중국선교단체에서 내는 각종 자료들을 열심히 읽으며 선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직접적·간접적으로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어 선교하는 일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열어 주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중국선교 같은 특수 선교영역에서 특히 그러한데 신중국 이전에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50만이었던 중국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사역하시자, 40년이 지난 1990년대에는 5천만을 추산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선교한다는 분들을 보면 선교는 하는데 누구를 위해 선교하는 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면 선교를 가르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어떤 한국교회에서 중국의 어떤 교회를 구입하도록 도왔는데 그 사실이 한국언론에 보도가 되어 중국법에 의해 중국의 그 교회가 압수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 협력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교파가 아니라서, 자신의 선교회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선교단체가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되어 선교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다려서 . . .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단 12:12)

(번역·출판부 제공)

「기다림」이라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같이 보이나, 몇 년을 들여야만이 배울 수 있다.

「큰 걸음으로 걷기」나 「구보」는 「차렷 자세」보다 훨씬 쉽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몹시 원하고 갈망할 때가 많지만 어떻게 손을 대야 할 지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절망하고 괴로워해야 하는가? 여기서 겁을 내고 뒤로 물러서야 하는가? 여기서 두려워하고 멈추어 서야 하는가? 아니면 맘대로 앞으로 돌진해야 하는가?

아니다. 모두 아니다. 기다려야만 한다.

기도하며 기다리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다 펼쳐 놓으라. 그리고 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며, 그의 응답을 구하라.

믿음으로 기다리고, 네가 그에 대하여 변하지 아니할 믿음을 고백하라. 하나님이 너로 한 밤중까지 기다리게 하시되,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임하시리라는 것을 믿으라.

인내하며 기다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했던 것처럼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 단순한 마음으로 네게 임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안에다 놓아 두며 말하라. 「주여, 지금 이 시간 저의 뜻을 이루지 마시고, 다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며, 저의 마음은 심히 고롭스롭나이다. 그러나 저는 당신께서 오셔서 물을 갈라 적들을 패주시키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는 기다리고자 합니다. 설사 당신이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은 다만 당신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당신은 저의 기쁨이시며, 구원이시며, 피난처시며, 견고한 망대이심을 굳게 믿나이다.」

◆ 단어, 구문 설명 ◆

開步 kāibù (가슴을 펴고) 큰 걸음으로 걷다

開步走 kāibùzǒu 앞으로 가!

跑步 pǎobù 구보하다. 구보.

立正 lìzhèng 부동 자세를 하다.

차려 자세를 하다. 차려.

頂 dǐng (부사) 아주, 대단히

事奉 shìfèng 섬기다. 모시다.

侍奉(shìfèng)과 같다.

膽怯 dǎnqiè 겁이 많다

膽小, 小心 역시 겁이 많다.

소심하다는 뜻이다.

擅自 shànzhì 제멋대로, 독단적으로

按時 ànshí 제때에, 규정된 시간대로,

제 시간에

潰退 kuìtuì 패하여 퇴각하다. 패주하다

潰兵 kuì bīng 폐잔병, 군대가 궤멸하다

仰望 yǎngwàng 바라보다. 바라다

拯救 zhěngjiù 구하다. 구제하다. 구원하다

就是 jiùshì 설사 ~이라도.

(주로 뒤에 也와 호응함)

「用禱告等候」, 「用信心等候」, 「用忍耐等候」

句는 뒷 문장과 병렬 내지 대등관계로

해석해야 되나, 본문에서는 대구의

구문을 감안하여 강조의 어감을 지니

게 해석하였다.

十一月二十日

【等到……的，那人便為有福。」（但十二章十二節）

【等候】這件事，看似似乎頂容易，可是學學總要花幾年。【開步走】，【跑步】，比【立正】容易得多。

許多時候，我們頂願意、頂渴望事奉神，但是不知道怎樣着手。那麼，怎麼樣呢？就此絕望、煩惱麼？就此膽怯、退後麼？就此懼怕、停住麼？還是擅自前衝呢？

不，都不；只要等候。

用禱告等候、呼求神，把事情展在祂面前；把你的難處告訴祂，向祂求應許。

用信心等候。向祂表白你對於祂不移的信任。你要相信：就是祂叫你等到夜半，祂也必按時來臨。

用忍耐等候。不要發怨言，像以色列人向摩西發怨言一樣。用簡單的心完全接受凡臨到你身上的一切，把它們放在神的手裏，說：「現在，主阿，不要成就我的意思，只要成就祢的意思。我不知道該怎樣做；我的心非常痛苦；但是我願意等候祢來叫水分開，使敵潰退。我願意等候，就是祢叫我等候多日，我也願意；因為我的心單仰望祢，哦，神阿，我深信祢是我的喜樂、我的拯救、我的避難所、我的堅固臺。」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로마서 15장 17~21절)

방 선 기 (성도교회 목사)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5: 17-21)

중국어문선교회의 창립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자부심은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전 1:31, 고후 10:17).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뿐 아니라 자부심을 꼭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신상발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그는 자기가 자부심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 자부심이 자기의 개인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가진 자부심이라고 했습니다(17절). 바로 그 자부심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I.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에 대해서(18절)

바울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들 ---교회개척, 양육, 훈련 그리고 때때로 보여주었던 이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그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은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

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데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자매는 주일 아침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청년부에서 그룹성경공부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럴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신 데 대한 자부심 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년 동안 일하신데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맡기실 일들을 짐으로 생각지 않고 즐겁게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무언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때 그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그 일에 자부심을 갖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II. 하나님의 일을 폭넓게 한 데 대해서(19절)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 즉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갈 수 있었던 가장 외딴 지방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의 비전이 누구보다도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유대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방선교를 하더라도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전입니다. 대학부 시절에 한정국이란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한국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나기 전이었는데도 세계선교를 입버릇처럼 외치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커다란 비전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 형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큰 대륙인 중국을 바라보면서 선교 비전을 갖게 된 중국어문선교회는 주안에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전이 커야 된다고 해서 허무맹랑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섬리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비전은 커야 합니다.

Ⅲ. 성취한 독특한 일에 대하여(20-21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은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누구한테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도 다시 복음이 전해질 필요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름대로 확신하고 정해놓은 원칙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원칙, 혹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 주시고, 그 일을 이룬 데 대해 주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즈음 한국교회에서 선교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중국선교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방지일 목사의 말씀에 의하면 중국선교의 열기가 좀 지나치다고 합니다. 중국의 상황도 모른채 그저 너도 나도 식으로 열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어문선교회는 바울의 원리를 따라 남들이 하는대로 하지않고 중국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을 발견했고 그 일에 귀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주안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Ⅳ. 결 론

우리 다같이 지난 일년 동안 하나님이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어문선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중국선교에 대해 가진 비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국어문선교회가 중국선교를 이루는 방법 중 남들이 하지않는 방법으로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中國宣教 現地使役報告

장 규 대 목사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7~39).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선교하는 일,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교를 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근심과 걱정,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시작해야 한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테일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먼저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선교했다. 나 역시 하나님이 중국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미국에서 편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선교에 임했다. 내가 나누어 준 물건을 가져가면서 그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그 후에 그들이 모두 나의 기도후원자가 되었다.

선교는 몸으로 해야 한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입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한다. 설교하는 사람 몸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야 한다. 또 선교는 이론이 아니고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자는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어야 하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위해 온전히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할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이 3가지 있다.

첫째는 목숨을 순교 재물로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 목숨이 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내놓으면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 내가 중국 흑룡강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날은

탄광이 있는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전도할 계획을 세웠다. 몇날이 걸려서 탄광부근 지역에 도착했으나 그냥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먼거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군용차 같은 다 남은 택시를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셨다. 그 택시를 타고 비포장도로로 3시간 거리가 되는 탄광촌에 도착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곳에서 믿음을 가진 한 여자를 만나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게 되었는데 그집은 시아버지 부부, 며느리 부부, 자녀들이 단칸방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일년 내내 목욕 한 번 못하고, 세탁도 못해서 그들에게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 집에서 며칠을 같이 지냈다. 그들은 칸막이조차 없이 구멍만 파놓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복음을 전하자 공산당원이었던 그 여자 남편의 강박하던 마음이 녹아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했고, 결국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주님의 놀라운 역사였다. 선교를 하는 사람은 100% 헌신해야지 1%의 구멍만 있어도 성공할 수 없다.

둘째는 언제든지 보따리를 싸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러 '가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세상에 대한 미련없이 떠나야 한다. 나도 미국에서 목회할때 좋은 대우를 받고 목회했으나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두 놓고 중국으로 갔다. 지금은 중국을 왔다갔다 하지만 머지않아 해외친선회관을 설립해서 책임자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선교하게 될 예정이다. 중국에 완전히 거주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한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나 역시 돈으로 선교하지 않았다. 선교는 목숨걸고, 언제라도 보따리 싸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돈 있고 배부르면 기도가 태만해진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 중 어떤 사람은 호텔에 묵으면서 좋은 음식만 먹다가 선교에 실패한 적이 있다. 현지에서 사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땀흘려야 선교가 된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음식이 문제될 수 없다. 헌신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세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교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을 폭포수 같이 흘러나게 하는 '3S'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Say (사랑을 말하라)

한국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약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고백해야 하고 현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2) Show (사랑을 보여주라)

현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화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그들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는 등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3) Share (사랑을 나누라)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사랑이 풍성해진다. 현지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낙심될 때 용기를 주고, 서로서로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선교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

고, 죽어져 가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앞에 봉착했던 로마서 8:37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수 있다.

---- 현지사역 VTR 상영 ----

< 질의 응답 >

질의: 연변에 있는 교회들은 삼자교회인가, 가정교회인가?

응답: 삼자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다.

그곳의 가장 큰 교회인 도문교회는 삼자교회이다. 전체 교회중 삼자교회가 1/3이고, 가정교회가 2/3이다.

질의: 교회에 명패를 달때 제재를 받나?

응답: 크게 제재를 받지는 않고 지금은 삼자교회나 가정교회가 별로 구분이 없다. 간판을 건 교회는 몇 안되고 80%가 간판없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본다.

질의: 선교대상은 조선족인가, 중국인인가?

응답: 먼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유는 조선족은 중국인보다 순수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그들이 변화되면 자기집을 가정교회로 만든다. 그리고 그들이 중국인에게 전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經文背誦 (성구암송)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19)

耶穌對他們說，來跟從我，我要叫你們得人如得魚一樣。(馬太福音4:19)

Yēsū duì tāmen shuō, lái gēncóng wǒ, wǒ yào jiào nǐmen dé rén rú dé yú yíyàng.

(Mǎtài fúyīn 4:19)

겸손하고 순박했던 상해지구의 초기 목사

黃品三

(1823~1890)

江蘇省 南匯地區



黃品三 牧師(1823~1890)는 미국남침례교회 초기 상해지구의 유명한 목사였다. 그는 華中 지구의 첫 침례교회인 상해 노복문 제일침례교회에서 23년간 牧會를 하면서 일생동안 주를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였으며 교회일에 열중하여 대단히 아름다운 열매를 남겼다.

黃品三 牧師는 또 황신이라고도 불렸으며, 道光 3年(1823)에 태어난 江蘇省 南匯地區의 사람이다. 그는 그 고장의 명문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성품이 민첩하고 영리하여 각종 서적들을 독서하는 것을 좋아했고, 詩書 양방면에 재간이 매우 뛰어 났으며, 音樂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道敎경전의 연구에 심취하였으며, 아울러 道교를 아주 진실하게 신봉하였으나 道교를 믿는 것이 그에게 심리적인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마음속에는 항상 근심이 가득했고 그 근심을 떨쳐 버릴 수 없어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감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기독교에 접촉하게 되었다. 황품삼은 이것을 계기로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되었다. 그의 심리적 변화는 미국 남침례회가 중국에 와서 선교한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황품삼에 대해 말할 때는 반드시 미국 남침례회가 중국에 와서 선교한 역사부터 말해야 한다.

道光 22년(1842), 중국과 영국간에 아편전쟁이 끝나자 양국간에 남경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조약 가운데는 청나라 조정이 상해, 영파, 복주, 아모이, 광주 등 5개 연해를 무역항으로 개방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 때부터 외국상인과 선교사들은 다섯 개의 개방항에서 무역과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교의 문이 개방되자 자연히 외국교회의 선교단체들은 활발히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미국 남침례회 (Foreign Mission Board Southern Baptist Convention)도 많은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였다.

미국 남침례회의 최초의 중국선교사는 셔크목사(Rev. John Lewis Shuck 1812~1868)로 道光 16년(1836)에 마카오에 도착하였고, 이듬해(1837)에는 로버트 목사(Rev. Issachar J. Roberts 1802~1871)가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그때는 아편전쟁이 발생하기 전이어서 청나라 조정의 외국을 배척하는 정책이 매우 엄격히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광주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아편전쟁이 끝난 후, 5개 통상항구가 개방된 지 2년째인 1844년에야 비로소 복음이 광주로 전해졌다. 이것은 미국 남침례회의 화남지구 사역의 시작 지점이 되었고, 전체 중국 선교사역의 시작 지점이 되기도 하였다.

미국 남침례회의 화중지역 사역은 이보다 늦은

道光 27년(1847)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개되었다. 이 해는 예이츠 목사 (Rev. Matthew Tyson Yates 1819~1888)부부, 토비 목사(Rev. T. W. Tobey)부부, 셔크 목사 부부 등 세 쌍의 부부가 광둥에서 온 두명의 중국인 신도와 연합하여 상해에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咸豐 2년(1852)에는 크로포드 목사(Tarleton Perry Crawford 1821~1902)부부가 와서 도왔다.

침례교선교회의 상해 지역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예이츠 목사 부부라고 보아야 한다. 토비 목사와 셔크 목사 등 두 쌍의 부부는 상해에 잠깐 있다가 병으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크로포드 목사 부부도 상해에서 몇 년 간 사역하다가 산둥 선교지로 돌아갔다. 예이츠 목사의 상해지역에서의 사역은 38년 간에 이르는 까닭에 상해지구의 침례교 교우들은 18~9년 동안 예이츠에게 양육을 받았다.

황품삼 목사의 기독교 귀의는 먼저 크로포드 목사 부부의 인도를 받았고 후에 예이츠 목사 부부에게 양육을 받았다. 원래 크로포드 목사의 부인은 중국에 온 후 선교 목적으로 여자국민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이 학교의 한 교사가 크로포드 사모 몰래 아편을 피우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아편에 중독되어 아편을 피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 학생들에게서 받은 학사금을 아편피우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이 교사는 해임되고 남녀 각 한명씩 교사를 새로 청빙하게 되었는데 이중 남자 교사가 바로 황품삼이었다. 황품삼은 성실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또 크로포드 사모에게 청빙되어서, 그녀의 중국어 교사가 되어 그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쳤다.

크로포드 목사 부부와 사제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황품삼은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그가 점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자 도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咸豐 5년(1855) 1월 16일에 황포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는 예이츠목사가 베풀었다. 이후로부터 그는 기쁨이 가득차서 미국 남침례회선교회에 소속된 상해 노북문제일침례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였으며, 매우 성실하게 봉사하였다. 함풍 7년(1857)이 되어 예이츠 목사 부부가 미국으로 휴가차 돌아가게 되자 교회의 모든일

을 크로포드 목사가 맡게 되었다. 사역의 실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황품삼을 집사로 안수하였고, 그는 크로포드 목사를 도와 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면서 여러 해를 일했다.

同治 2년(1863), 크로포드 목사가 병이 들어 상해를 떠나 산둥지역으로 가서 선교하게 되자 상해지역은 또 예이츠 목사 혼자서 담당하게 되었다. 선교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였고 게다가 남북전쟁(1861~1865)이 발발하여 이 선교회의 재정이 큰 영향을 받게되자 보내 오는 경비로는 상해지역의 선교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게 되었다. 예이츠 목사는 교회 및 가정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벌기 위해 미국의 상해주재 영사관에서 통역에 종사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이 일로 예이츠 목사는 더욱 바빠지게 되어 항상 시간의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황품삼이 전적으로 협조해야만 했고, 이 때 황품삼은 예이츠 목사의 가장 좋은 협조자가 되었다.

후에 예이츠 목사는 여전히 사무가 복잡하고, 선교사역에 실 틈이 없어서 성대에 병이 나서 목소리가 잠기는 失音症을 앓게 되었다. 결국 그는 다른 데로 가서 요양해야만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교회의 목양과 전도 및 설교를 거의 다 황품삼이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었고, 동치 9년(1870)에 교회는 정식으로 그를 목사로 안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는 상해 노북문 침례회의 첫 중국 국적을 가진 목사가 되었다.

노북문침례회의 예배당은 예이츠 목사와 황품삼이 신도들과 연보하여 세운 교회로 침례받을 장소는 없었고, 교회당 안에는 석유등으로 밝혔으며, 500파운드 나가는 큰 종이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회사인 旗昌洋行(The Russell Co.,)이 기증하여 세워진 종이다. 이 교회는 침례교선교회가 화중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교회였는데, 황품삼목사가 23년간 목회하는 동안 교회업무가 아주 신속히 확장되었고 상해 지역에서 더 확산되어 곤산, 소주, 진강 등지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는 황품삼 목사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

황품삼 목사는 목양을 잘하는 은사 외에도, 설교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으며 항상 정밀하고 깊이가 있었다. 또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던 것을 발견해 내었으며, 기독교의 깊은 원리를 쉽게 표현해 내어 신도들에게 주

는 이점이 적지 않았다. 항상 감동적이고 열심있는 태도로 교회를 위해 봉사했으며 교회에 주는 유익이 나날이 증가되었다.

황품삼 목사는 光緒 16년(1890)에 노고를 그쳤는데, 세상에 있는 기간이 68년이였다.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사람됨이 평이하고 순박하였고,

친밀은화하여 사람들이 그와 사귀는 것을 기뻐했으며 교우들의 존경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좋은 목사였다고 일컫기에 부족함이 없다.

[출전:中國基督教人物小傳 上卷]

정시

말 없이 사랑하여라

말 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자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잠자코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도록 말 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네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그 왕국을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너를 가까이 앓고 오히려 멀리 떼어 버려 따돌림을 받을 때

말 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 말 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무시 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슬플 때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에 기쁨을 흠뻑리며 사람의 행복을 더해주도록 마음을 써라

인간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초조해지거든 말 없이 사랑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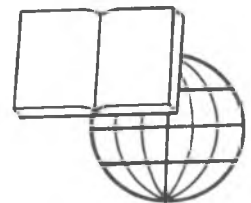
마음 저 밑바닥에 스며든 괴로움을 인내롭게 바쳐라

네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또한 심한 비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형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 J. 갈로의 시 -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김용배 간사 (중국어문선교회 복음전도단)

국제정세가 변화되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사는 친척들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그들은 친척 방문길에 한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짜잘한 수입을 올리게 되자 그 일에 재미를 느꼈고, 그 소문이 퍼져 너도나도 돈을 벌어 보겠다고 빙까지 내어 약을 구입해 한국으로 몰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에 수은 등 몸을 해롭게 하는 나쁜 성분이 들어 있고, 가짜가 많다는 보사부 발표가 신문에 보도 되자 판로가 막혀 버렸습니다. 결국 약을 팔지 못했고, 여비를 마련하지 못해 돌아가지 못한 중국교포가 현재 4-5천여명(국민일보 12월 7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본 선교회는 본래 문서선교에 큰비중을 두고 중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주 회원이 되어 시작한 선교회이나 중국인 및 중국교포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단을 구성해 직접전도 사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중국교포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본 선교회 전도단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지만 기도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교포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본 선교회가 감당했던 역할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마 9: 37)는 말씀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는 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오기도회, 매달 세째 금요일 산상 철야 기도회에서 일꾼을 보내어 전도단을 구성해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11월 전도단을 구성해 매주 월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는 11월 19일 파고다공원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한국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2차 전도는 11월 26일 본격적으로 방한 중국교포들에게 17명의 전도요원이 모여 정재순 전도사로부터 전도훈련을 받고 시청 근처에 있는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림교회 권사님이 준비하신 250인분의 떡과, 보리차를 대접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이라는 전도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대체로 호응이 좋았고 특히 그들중에는 점심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떡을 주었을 때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하얼빈(哈爾濱)에서 오신 한 아주머니께서는 “예수교가 이렇게 사랑이 있는 종교인 줄을 몰랐고, 처음 이해(理解)했다.” 고 하면서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면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차 전도는 12월3일 “기독교 방한 중국인 교포 환영잔치”로 한국대학생선교회, 예술인선교회, 방송대 기독교학생회, 방송대 낮·밤 중국어성경반, 중국복음선교회 등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대학생선교회 크로스로드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어린이전도협회 총무인 장규대 목사의 말씀전달, “주관자(主管者)”라는 영화상영, 새터교회 박성아 전도사가 인도한 친교시간, 예술인선교회의 찬양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석한 교포 모두에게 신앙성경책과 전도책자(기독교란 무엇인가: 한경직 저)를 기념품으로 드렸는데 참석한 120명 중 40%가 결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식사제공 및 봉사지원 중국복음선교회에서는 중국차, 예술인선교회에서는 특별찬양과 간식 및 신앙성경책, C.C.C에서는 장소제공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봉사해 주었습니다. 12월4일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에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지만 본 선교회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4차 전도는 12월 10일 C.C.C회관에서 중국인교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선교회 주관으로 행사가 이루어졌고, 17일-19일에 다시 전도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중국교포 전도를 서두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때 약삭빠른 이단 종파가 이미 손을 뻗었습니다. 12월6일자 경향신문에 의하면 중산도에서는 9월부터 중국교포들에게 김밥, 음료수 등을 제공했고, 신도들의 집에 교포들을 초청해 대접한 결과 200명의 교도가 중산도에 입도했다고 합니다. 중산도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에서도 발벗고 나서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첫째, 앞으로 방한 중국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범교단적인 차원에서 협력단체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협력단체 아래서 각교회 또는 선교단체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서로 일을 분담해 전도하는데 전력한다면 자기 소속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급급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앞으로 전도 전략을 세울 때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것에서 벗어나 좀더 먼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세웠으면 합니다. 즉 1단계는 전도, 2단계는 결신, 3단계는 훈련, 4단계는 그들이 돌아가 선교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했으면 합니다. 이번 전도에서 결신한 분들은 C.C.C에서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세번째, 결신한 교포들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먼저 전도훈련을 받은후 그들의 파트너가 되어 일 대 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국인 교포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청 지하도에서 장사하면서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몸으로 보여 주는 조그마한 사랑이 곧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관심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들은 쉽게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직접 들어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북경아시아게임 때 2-3백만원을 들여서 전도하려고 문화사절단 일행으로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안부의 제재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중국에 가지 않고서도 중국을 복음화시킬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일도 또 중국어를 할 줄 몰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수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포들 대부분이 여름에 들어왔기에 방한복이 필요하고, 숙식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직접 봉사대원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기도로 후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매해마다 2-3만명의 교포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돌아간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중국은 조금씩 복음화되어 갈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명령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날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❷



(11월 26일 시청 근처에서 전도를 마치고 중국 교포와 함께)

중국교포들의 결신서

중국주소: 黑龙江省
한국주소: 경북

이름(한글): 권 X X
(한자): 权 X X

지당체이 열정적인 환영과 대접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귀는 귀뚱으로
코희에 왔지만 오봉 와보니 약으로 예수님을 뵈어 받들
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합니다.

중국주소: 中国吉林省
한국주소: 서울서대문구

이름(한글): 권 X X
(한자): 廉 X X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 교포들에게 동포의
애, 친절 등의 정을 베푸신데 대하여 심히
감사드리면서 감으로 주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여 믿음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국 주소: 中国辽宁省

이름(한글): 이 X X 추 X X
(한자): 李 X X

귀국을 방문하여는 감동과 사랑을 받았을 때 오직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교회에서
따뜻한 도우미 손길을 주셨을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 귀교에
다녀오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심경과 사랑을 구합니다.

중국선교 우리 곁에 와 있다

전 덕 용 집사(공항선교회)

어떤 시인이 행복이란 산 넘어 아주 먼 곳에 있지 않더라도 결론을 내린 시귀를 어린 시절 읽고 얼핏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냉큼 그 뜻이 애매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린 때 나의 이러한 생각이 문득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입장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동일하다는 느낌이 든 것은 요즘 중국 교포들의 대거 입국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교회들의 중국선교에 대한 자세를 바라볼 때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중국선교의 과제는 분명히 매우 중대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복음에 빛진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중국 11억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야말로 이 민족교회의 최대의 숙제 임에 더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으리라 본다.

현재 북방외교의 성숙한 분위기를 타고서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는 중국 교포들의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의 한약판매 때문에 매우 논란이 많고 있다. 물론 한약의 함량이 어떠하느니, 과다한 한약을 국내에 반입시킨 저들의 의도가 절대로 순수하지 못하므로 정부의 철저한 관세정책이 요구된다느니,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외교정책에 심각한 마찰을 불러오지 않겠느냐는 등 그리 간단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와 관련하여 볼 때 도대체 이 나라의 교회들이 내한 중인 중국교포들에 대한 선교와 관련된 반응이 어떠한가 하고 아무리 관찰해 보아도 이들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마디로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야 옳을 정도의 무감각해 있음을 보고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을 포함한 한국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어떠한가 하는 조바심에서 늘 주님앞에 죄송스럽고

무언가 식사도중에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듯한 답답함에 신문과 방송에서 중국교포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그러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물론 몇몇 교회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교회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 중국교포들을 자신들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초대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성경공부를 시키는 등 미담 사례로써 신문에 가끔 소개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각박한 세상 속에서 신문에 보도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주님의 가르침에 의한다면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교회가 저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절대 명령이고 지시이지 결코 교회가 사사롭게 취사 선택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며 더욱이 교회가 뒷전에 서서 수수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때에 중국어문선교회가 선교회 설립 본래의 문서관교 기능을 감당해 나가는 일 하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국교포들에 대한 선교사역을 자진해서 감당키로 결정한일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고적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교포의 수는 약 1만5천명 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구체적인 선교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바야흐로 중국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가까이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들이 연중 모여 대형 집회를 주도하면서 세계를 복음화 한다느니 중국선교는 한국교회의 몫이니 하는 등 거창한 선교 목표들을 놓고 집회를 주도하면서 선교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 성과의 미미함을 놓고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교회들의 저들에 대한 뜨거운 선

교열정을 다시금 촉구하면서 그동안 필자가 이들 교포들의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저들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느낀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에 당위성을 나름대로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선교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출신 교포들에 대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교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만 한다면 저들이 귀국하여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중국으로 왕래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북한선교의 채널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무신론 공산주의의 사신에 사로잡힌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저들이 신봉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무력화하여 복음에 의한 남북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편으로 정부의 북방외교 및 통일정책의 특수성 때문에 북한 선교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도 고도의 선교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지난번 지도급 인사들의 방북이후 기존 한국교회들의 북한선교에 대한 신중한 선교전략이 요청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들 동포들에 대한 선교를 꾸준히 해 나감으로 정부의 북방외교 및 통일 정책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국교회가 북한에 대한 간접선교라는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민간외교 성과 거양 및 중국선교의 유리한 고지 확보이다. 최근 각 교회들의 중국교포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신문지상에 보도 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은 매우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 중국 교포들이 귀국하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로부터 따뜻한 정과 사랑을 체험했음을 그곳 국민들에게 홍보할 때 중국정부당국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효과가 매우 커질 것이고 이러한 제 요인들은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변화되어 동구 공산권국가 및 소련과 같이 중국정치

의 민주화가 급격히 도래하여 중국정부가 외국 선교사들의 파송을 정식으로 허락하게 될 때, 한국교회가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들 중국교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뿌려 놓은 선교의 씨앗이 그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켜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선교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누구라도 쉽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교포들의 대다수가 정확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 일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말로 저들에게 마음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 나아가 이들 동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중국에 귀국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면 현재 한국에 선교사가 직접 중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선교야말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중국대륙에 직접 선교사를 파송시켜 더 큰 선교사역을 감당할 시기가 도래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는 중국교포들에게 우리가 선교의 열정과 주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한국교회들의 중국선교에 대한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현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교포들에 대한 선교가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로 통일되어 힘을 합쳐서 더욱 큰 주님의 섭리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우리 신앙인들의 행복이 먼데 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주님께 영광돌려야 하는 것 같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어려운 여건을 무릎쓰고 직접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교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行商석달 . . . 씁쓸한 『빈손 歸鄉』

--- 中國 국영TV직원 崔慶生씨가 밝힌
어느 僑胞의 고민---

한국에서 한약을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한약재를 가지고 한국에 찾아왔다가 약이 잘 팔리지 않아 중국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길가에서 팔아야하는 딱한 처지의 중국교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교포로 中央民族大學을 졸업한뒤 중국 CCTV직원으로 일하다 최근 문화교류차 한국에 와 머물고 있는 崔慶生씨(36)는 서울의 중국교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좌절감을 기록한 「金華의 苦惱」라는 글을 써서 東亞日報에 기고했다.
(1990. 11. 24 동아일보 기사) 그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한약제를 팔기 위해 3개월전 고국을 찾아온 중국교포 金華씨는 최근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다. 한국에서 한약재를 팔다 보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에 몇집이나 되는 한약재를 싣고 고국을 찾았으나 한국정부당국이 중국한약가운데 가짜가 많다고 발표한 뒤 한약재는 팔리지 않고 계속 기다리자니 비자만료기간(3개월)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金씨는 한동안 다른 중국교포들과 함께 덕수궁에서 하루 10여 시간을 꼬박 서서 손님을 기다리기도 했으나 이미 약효가 없고 가짜라는 소문이 퍼져 단 한점도 팔 수가 없었다. 金씨는 좁디좁은 싸구려 여관방에서 가득 쌓인 약상자때문에 두발조차 제대로 뺄지 못한 채 쓴 소주를 마시며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비만 벌었으면...」하는 걱정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金씨가 고국에 갖고 들어온 한약은 중국 일반회사원의 수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액을 투자해 구입한 마치 금은보화나 다름없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다. 金씨는 3개월전 고국을 찾을 때 약값과 차비 체재비 등을 합해 모두 중국돈 6만원(일반 회사원 50년치 월급에 해당)을 급하게 만들어 약을 사가지고 들어왔다. 예금통장의 잔고를 바닥내고 동생의 결혼자금까지 보탠데다 6개월 뒤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비싼 이자까지 주고 어렵게 끌어들인 사채를 합친 돈이었다. 金씨는 그래도 金浦공항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는 희망에 차 있었다. 수년 전부터 고국을 찾아 한약을 팔아온 동료교포들이 매번 엄청난 수입을 올렸던 것을 두눈으로 지켜왔기 때문이었다. 金씨는 처음엔 한국내 친·인척을 찾아 한약구입을 권했다. 대부분 잘사는 친·인척들이라 막연히 「사 주겠지」하는 기대를 걸었던 金씨는 그들의 냉담함에 넋을 잃고 말았다. 金씨에게는 오랜만에 찾은 반가운 친척들이었지만 이

들은 이미 남으로 생각됐다. 이렇게 약 한 점 팔지 못하고 한달을 보낸 **쑤씨는** 다행히 동료 중국교포들이 모여사는 곳을 찾아내 함께 어울리며 간신히 얼마 안되는 약을 팔아 치우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한국의 보사부가 중국교포들이 갖고 온 한약이 가짜라는 판정을 내렸고 이 내용이 국내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방송에 주요 뉴스로 나가는 바람에 판로가 확 막혀버린 것이다. 절망에 빠진 **쑤씨는** 막다른 골목에 선 심정으로 여관방에 처박아 놓은 한약재를 끌어내 덕수궁 돌담옆 길거리에 깔아놓고 노점상을 해야했다. 그러나 이미 가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사줄리 만무했고 오히려 **쑤씨는** 좌판 행상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경찰서를 드나드는 신세가 되어 했다. 이때부터 **쑤씨의** 고민은 더욱 심해졌다. 다른 중국교포들이 벌써부터 고국을 찾아와 재미를 다 보고 간 뒤에 「막차」를 타고 온 자신의 신세가 한스럽기만 했다. 중국한약의 대량반입이 한국 제약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이 물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좌절감을 안겨준 고국이 야속하기만 했다. 더 이상 한약을 팔기를 포기한 **쑤씨는** 일당 3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에 막노동판을 헤매기도 했고 중국어학원 강사 자리도 기웃거리려 봤다. 그러나 별다른 솜씨도 없고 중국 東北사투리가 심한 **쑤씨**를 반기는 곳은 어느 한 곳도 없었다. 며칠만 더 고국에 머물면 불법체류자로 물리게 될 위기에 처한 **쑤씨는** 결국 금명간 고국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비록 경제적인 여유는 없으나 마음만은 편했던 중국이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쑤씨는** 싸가지고 갈 수도 없는 남은 한약을 다른 중국교포들에게 싼값으로 넘기고 중국에 돌아가 본업에 충실하기로 결심하니 더이상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고 털어냈다.



동참자를 찾습니다

본선교회가 오래 전부터 기도해온 방한 중국교포들에 대한 선교사역이 마침내 현실화 되었습니다. 본선교회는 지난 11월 19일 소규모의 중국교포복음전도단을 결성한 뒤 곧이어 시청 앞 교포들을 대상으로 전도의 발길을 내딛었는데 발걸음을 떼자마자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쳐서 홍해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2월 3일 타선교단체 및 교회와 협력하여 CCC회관에서 약 120명의 중국교포를 초청하여 환영잔치(사실상 전도집회)를 배운 것을 필두로 한 주 뒤에는 약 250명의 교포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잔치를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교포선교협의회가 조직되어 17, 18, 19일 3일 간 본격적인 전도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포들의 순박한 심령에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곧 결신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봉사하는 이들이 더욱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사역의 추진을 위해 본선교회에서는 중국교포복음전도단을 더욱 강화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분도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십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뜻있는 분들의 뜨거운 동참을 바랍니다.

(연락: 본 선교회 김용배 간사 T. 594-8038)



(위 사진은 국민, 한국일보 12.4에 보도된 것임)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Ⅱ (1949-1988)

(번역: 방 지 거)

(지난호에 이어서)

(3) 1954~58년 사이에는 국가가 정치학습을 통하여 교회를 개혁하였다.

1954년 7월에 중국은 신헌법을 선포하였으며 교회는 그것을 지지하도록 강요받았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자 항미원조삼자개혁운동에 대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운동은 1954년 7월에 북경에서 "전국 기독교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그 회의에서 단체의 명칭이 "삼자 애국운동"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삼자애국운동의 규약이 채택되었다. 제1차 전국기독교회의 이후, 삼자애국운동의 지방 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이 경주되었으며, 모든 교회들은 반체국주의적 애국주의의 상징인 이 단체에 가입되도록 강요되었다. 초기의 삼자개혁운동이 임시방편적 애국운동으로서 모든 교회들을 지도한데 반해, 삼자애국운동은 이제 교회의 애국적, 비애국적 여부를 판가름하는 조직이 되었다.

삼자애국운동에 가입하기를 거부한 교회들은 사실상 자신들이 "비애국적"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 없었다. 게다가 초기에는 외국 선교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던 핵심적 교회들이 공격의 주목표가 되었던 것에 반해, 1954년 이후에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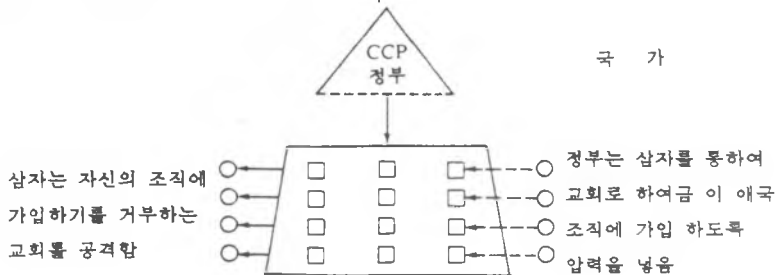
결을 더 나아가 토착적인 중국인 교회들도 탄압 대상이 되었다. 1954년 북경의 왕명도(王明道)와 광동의 임헌고(林獻羔)와 같은, 삼자애국운동을 거부한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협력을 거부한 중국 천주교 사제들도 마찬가지로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또 비협조적인 유교지도자들 역시 1955년에 체포되는 등 모든 종교에 걸쳐 비협조적인 종교계 인사들에게 탄압이 가해졌다.

이 기간의 교회-국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서조차도, 각 교회들은 삼자애국운동에 가입하는 문제를 포함한 제반 교회적 문제들에 대해 그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국가는 목사들이 사회주의 중국에서 기독교적 신앙 대신 공산당의 신념을 가지도록 할 목적으로 삼자애국운동의 틀 안에서 그들에 대한 정치학습을 강화하였다.

(4) 1958~66 동안에는 삼자(공인)교회의 형성을 통해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 이루어 졌다.

1957년 여름부터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학습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1958년 대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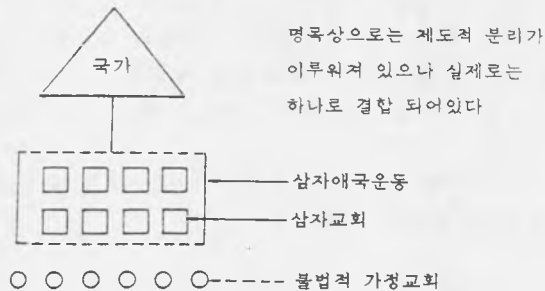
운동이 시작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1958년 가을 상해(上海)에서는 삼자애국운동에 이미 가담했던 목사들에게 집을 떠나 정치학습을 받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이 정치학습은 6개월간 계속되었으며, 이 시리즈에 연이어 두번째 학기가 1959년 전반기에 시행되었다.

이 학습과정에서 목사는 착취계급에 속하는가 아니면 피착취계급에 속하는가라는 계급적 성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들중 자신이 착취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목사들은 "자진하여" 노동현장으로 감으로써 노동자 계급에 속하고자 했으며 그렇지 못하여 아직까지 "계몽되지 못한" 목사들은 강제로 노동개조의 현장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되자 목사들의 장기적인 부재와 후속적인 사역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교회가 절반쯤 비게 되거나 목회자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삼자애국운동은 "교회 통합" 운동을 요구하였다. 일부의 교회들은 그들의 건물을 국가에 "헌납" 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스스로 이웃 교회들과 통합하였다. 그 결과 교회의 수가 현격히 감소되었다. 예를들면, 상해에서는 200여개의 교회가 8개로, 북경에서는 66개의 교회가 4개로 줄어 들었다.

통합운동 이후에 남아 있던 소수의 교회들은 삼자애국운동에서 지정한 교역자들에 의해 지도되었는데 이러한 교회들이 후에 "삼자교회"라 불리워졌다. 정치학습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몇몇 교파의 목사들과 아직 이용가치가 있던 몇몇 교계의 명망있는 인사들이 이 삼자교회에서 사역하였다. 이 기간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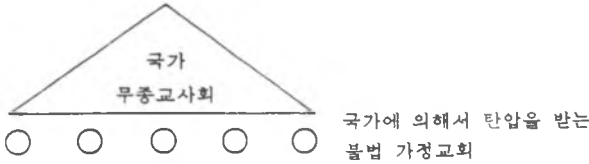


삼자애국운동에 있어서 각 교회들은 더 이상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교회들은 교회 임직자의 선출이나 목회자의 선임에 더 이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1958년 이후에는 농촌 교회들은 정무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독자적인 교회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되었고 또한 그들의 지도자들은 체포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교회들은 비밀리에 집회를 가져야만 했다.

(5) 문화혁명기간 (1966~76)에 국가는 교회를 파괴하고자 했다.

1966년 8월 문화혁명이 발생하자, 홍위병들은 당 본부나 정부청사에 난입하여 여타의 기관들과 함께 기독교와 관련된 통일전선사업부와 종교사무국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며, 남아 있던 모든 삼자교회들도 폐쇄시켰다. 그들은 "네가지 구습(역주: 구사상, 구문화, 구풍습, 구습관)"을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이 미신이라 간주하는 모든 중국의 전통종교 및 제도적 종교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공격은 중국의 종교 정책이 새로운 혁명적 상황의 대두와 함께 1958-66년 사이에 시행 되었던 통일전선 차원의 온건노선에서 종교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강경노선으로 급격히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문화혁명의 후반기(1969-76)에는 종교정책에 관한 문서가 발간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혁명위원회에 의해 실제적으로 집행된 종교 정책을 종합해 보면 국가의 입장은 종교를 불법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그것의 재출현을 탄압하는 정책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활동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불법화시켜 버렸다. 국가는 완전히 하나의 단일통치체제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나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비밀리에 계속적으로 집회를 가졌으며, 이러한 모임은 특히 농촌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집회들은 불법적인 것이어서 폐쇄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체포되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안위와 교제, 그리고 희망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규모와 수에 있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가정교회들은

국가와 공식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채 비밀리에 불법집회를 가졌기 때문에 종종 지방정부의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이 기간의 교회-국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하고 사인방(四人幫)이 체포되고 난 뒤에도, 종교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의 전체주의적인 상태가 얼마간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977년 덩소평이 복권된 후, 그가 채택한 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종교탄압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1979년 4월까지의 강경노선의 정책에 변함이 없었다.

(6) 1979~82년 동안에는 국가는 온건노선의 종교정책을 회복시켰으며 애국단체들을 부활시켰다.

덩소평의 복권(이는 1978년 12월 당 11기 3중전회(三中全會)의 개혁정책채택으로 입증되었음)과 더불어 통일전선 사업부의 중앙위원회가 1979년 3월에 재설립되었고 그 해 4월에는 종교 사무국도 뒤이어 부활되었다. 그와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문혁이전의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온건노선의 정책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북경의 개신교 교회들에 대해 1979년 4월부터 신자들의 예배가 허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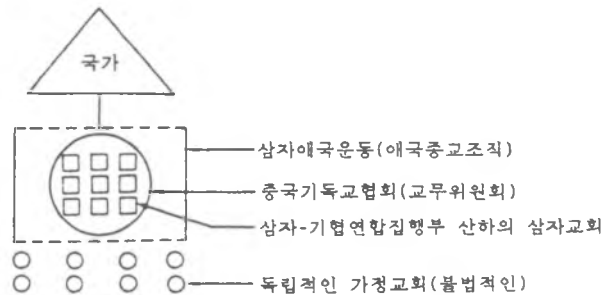
1979년 8월에는 삼자애국운동 상해 위원회가 재조직되었고 1979년 9월에는 1966년 이래로 폐쇄되었던 대도시의 삼자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1980년 2월에는 전국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집행위원회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삼자애국운동은 1980년 10월에 남경에서 제3회 전국기독교회의를 소집했으며, 여기에서 소멸되었던 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재조직하였다.

한편 남경회의에서는 중국기독교협회(CCC)라는 이름의 또 다른 단체가 조직되었다. 정부의 종교

정책 수행을 도와 교회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삼자애국운동과는 달리 중국기독교협회의 역할은 삼자교회들에서 발생하는 교회적인 문제들을 돌보는 것이다. 예를들면 성경인쇄, 신학교육, 신앙서적의 발간, 그리고 외국교회들과의 친선방문 등과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단체의 간부들은 거의 동일하며, 그들은 거의 언제나 연합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북경 정부에 대해서는 삼자애국운동이 애국적 종교단체로서 중국교회의 대표성을 지니지만 외국의 교회 협의체들에게는 중국기독교협회(CCC)가 중국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기구이다. 따라서 삼자애국운동 지도자들이 외국을 방문할때는 중국기독교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기간의 교회-국가 관계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삼자애국운동과 중국기독교협회가 1981년에는 성(省) 단위까지, 1982년에는 현(縣) 단위까지 그들의 조직을 확대해 감에 따라, 1970년 이래로 번창해 왔던 수많은 가정교회들과의 사이에서 마찰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가정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계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 가정교회들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집회를 가졌으며 체포의 위협하에 놓여 있었지만 국가의 통제를 거의 벗어난 독자적인 기독교 집단으로서 어느정도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국가 통제에서 독립된 기독교 집단으로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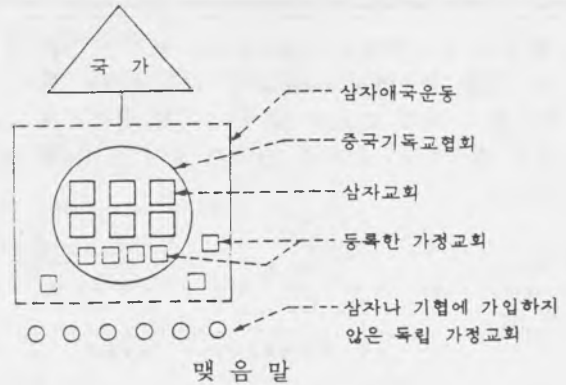
(7) 1982~88년 동안에는 국가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은 목하 진행중인 사회

주의에로의 이행단계에 따른 포괄적인 종교정책을 수립하였는데 그것은 현(縣) 단위의 당 비서들에게까지 배포된 바 있는 1982년도의 당 중앙위원회 제19호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적 신앙의 자유” 정책이다. 이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삼자애국운동은 1982년 9월 북경에서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삼자애국운동 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는 지방 종교 사무국과의 협력하에서 기존의 가정교회들을 삼자애국운동 및 중국기독교협회에 가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삼정(三定)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가입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고자 가입을 거부하고 교회의 자율성을 선택하였다. 이에 가입을 거부한 가정교회지도자들에게는 1982년 8월부터 탄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1983년 후반기에서부터 1984년 말까지 심한 박해를 받았다. 반면에 공인교회가 부재한 지역의 경우, 지방정부는 예전의 자신들의 교회를 회수하기를 원하는 신자들의 요청에 응해 주었다.

1984년 10월 당은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통과 시켰다. 이것은 국가 경제개혁 계획의 기초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도시시장경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같은 전반적인 통제 완화의 결과로서, 가정교회에 대한 탄압은 1985-86년 동안 다소 경감되었으며, 1982년에서 1984년 사이에 체포되었던 상당수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석방되거나 감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수 많은 농촌지역의 독립 가정교회들이 삼자애국운동 현(縣) 위원회에 가입하여 연중상납금을 납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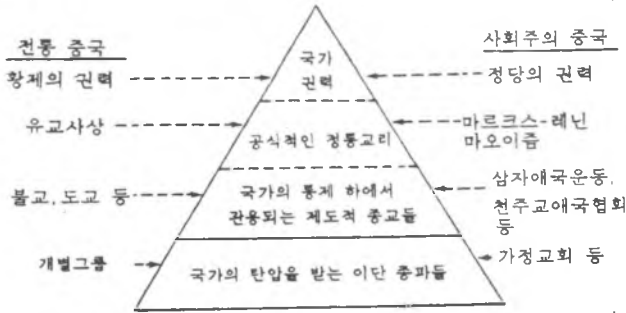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은 삼자애국운동의 정책을 따르면서도, 그들 교회의 자율성을 유지한 채 종전대로 종교활동을 계속한 점이 기존의 삼자교회와는 성격이 달랐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가정교회들은 여전히 삼자애국운동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교회-국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래로,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국가 관계는 줄곧 중국 공산당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당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종교의 존재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들에게는 교회-국가간의 상호 만족할만한 관계 발전을 위해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전국기독교협회(NCC)와 같은 기존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독자적인 기독교 기구들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으며 나중에는 해체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개신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절대성을 지니게 되었다.

처음부터 당은 자신의 하부기관인 삼자개혁운동(후에 삼자애국운동으로 개칭)을 설립하여 중국의 개신교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그것을 개신교 교회들에 대한 대변자로 삼았다. 그 후 이러한 통제는 결코 완화된 적이 없었다. 삼자애국운동은 교회를 통제하는 국가의 도구임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국가의 관용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삼자애국운동의 영역은 곧 합법성의 영역이며, 또한 종교적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영역안에서는 목사를 위한 사회주의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삼자애국운동은 국가에 대한 교회의 대표라기 보다는 교회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외선전에는 삼자애국운동과 중국기독교협회가 중국 대륙의 개신교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4천여개의 교회들과 3백만명의 신자들을 대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최소한 20만의 집회소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5천만 이상의 신자들을 대표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국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전통 중국에서의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양자 사이의 평행관계는 매우 분명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국가 통제의 문제에 관한 한, 현재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는 과거의 봉건적 전제주의 국가의 전통을 물려 받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중국 공산주의의 종교정책은 전체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봉건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중국 대륙이 현대화를 향한 거보를 내딛고자 하고 또 진정으로 "정신적인 문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종교에 관련된 그들의 이론과 실천을 재 검토하여 현대의 발전적인 민주사회에 알맞도록 그것들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의 일방적인 종교정책 주도에 대한 중국 기독교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에서 58년 사이에 거의 일만명의 개신교 교역자들 중 노동자들 대다수가 탄압에 굴복하였다. 그들은 "기독교 선언"에 서명하였으며, 과거 그들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을 고발하였고, 또한 삼자애국운동에 가입하였다. 오직 일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충성심을 입증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선택하였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 1958년 이후 삼자교회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교회 업무에 있어서 정부의 지도를 받아들였지만, 많은 충성된 평신도 지도자들은 정부의 종교정책을 무시하는데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양심에 따라 지하모임들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문화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실토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그에 따른 핍박과 탄압은 그들로 하여금 이후의 복음증거를 위하여 정금같이 연단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되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노력했으며, 적대감을 갖고 있는 정부당국과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적극적인 전도 계획과 교회 개척 계획을 비밀리에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원리들은 모택동의 사후에 와서도 가정교회 운동을 위한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삼자애국운동의 목사들과 국가 간에는 의견상의 갈등은 없다. 그들은 이미 교회 업무에 있어서 국가의 지도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내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합법적 영역 안에서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국가에 의해 제시된 한계안에 스스로를 제한시켜야 한다.) 삼자애국운동에 가입하기를 거부했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던 이유도 바로 교회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인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고 또 복음전도의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회-국가관계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교회에 대한 지도의 문제: 누가 교회를 지도하는가? 예수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2) 복음전도의 문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3) 교회의 보편성의 문제: 한 국가의 교회는 국제적인 그리스도의 지체들과의 교류를 단절해야 하는가 아니면 장려해야 하는가?

중국 대륙에 있어서, 우선 이상의 갈등들은 북경당국이 자신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만이 정통적인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들은 모두 이단이라고 하는 견해를 포기하기 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둘째로, 법에 따라 당과 정부간에 진정한 분리가 이루어질때까지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패턴은 거의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다원주의 정책을 채택할 때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법적 자유를 구가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이것들이야말로 미래의 중국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인 동시에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기도제목이기도 하다.



중국어로 찬양을!

和 散 那

Hosanna

Carl Tuttle

太 21 : 9

♩ = 116

G D Em C D

1 | 1 . 5 5 0 1 | 2 . 5 5 0 2 | 3 2 1 7 1 3 | 2 - - 0 1 |

1. 和 散 那, 和 散 那, 和 散那歸於至 高 神! 和
2. 榮 耀, 榮 耀, 願 榮耀歸萬王 之 王!

G D Em C D

1 . 5 5 0 1 | 2 . 5 5 0 2 | 3 2 1 7 1 3 | 2 - 0 0 |

散 那, 和 散 那, 和 散那歸於至 高 神!
榮 耀, 榮 耀, 願 榮耀歸萬王 之 王!

C D G C D G

0 4 4 4 3 2 3 | 3 . 0 0 0 | 0 . 4 4 3 2 3 | 3 . 0 0 0 |

我們齊聲讚美 稱至聖尊名,

C D G D/F# Em C D G

0 4 4 4 3 2 3 | 3 2 1 0 3 | 4 3 2 1 2 . 1 | 1 - - 0 ||

權柄尊榮歸 主 我 神, 願 榮耀歸萬王 之 王!

© 1985 Mercy Publishing.

All rights reserved. International copyright secured. Used by permission.

© 中文譯作權 1990財團法人基督教以琳書房

우리말 가사 :

-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 영-광 영-광 왕의 왕계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계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양 우리의 비유

(요한복음 10장 1절~29절)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양 무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부터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부터 기어들어 가면 그 사람은 곧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양의 목자이다. 문을 지키는 사람이 곧 그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요 양도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는 이름에 따라 자기의 양을 불러서 양을 인도해 낼 것이다. 자기의 양을 풀어 놓는 앞에서 인도할 것이고 양도 그를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은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음성을 모르므로 반드시 도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알려 주었으나 그들은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곧 양의 문이다. 무릇 나보다 먼저 온자는 모두 도둑이요 강도이다. 양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곧 문이다. 무릇 나로부터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게 될 것이다. 도둑이 와서는 훔치고 살해하고 파괴하지 않음이 없으나 내가 와서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아울러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할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만일 고용인이고 목자가 아니라면 양도 자신의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는 양을 버려두고 도망할 것이다. 이리는 양을 잡아가고 양의 무리를 흩어 놓을 것이다. 고용인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임시로 고용되어 결코 양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나의 양을 잘 알고 있고 나의 양도 나를 알

고 있다.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는 따로 양이 있는데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내야 하며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무리로 합쳐지고 한 목자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버려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으며,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한 돌이킬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말로 인하여 또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가 몸에 붙었고 미쳤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는 귀신이 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찌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에 修殿節이 있었는데 그것은 겨울이었다. 예수님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 아래를 걸어가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게 만들 작정입니까?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으나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받들고 행한 일들이 나를 위해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

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양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만유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누구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 단어 해설 □

實在 shízài ① 실재하다

② 진실하다, 실속있다, 참 되다

③ 확실히, 진정, 참으로

告訴 gàosu 알리다, 말하다.

圈 juàn (가축의) 우리

聲音 shēngyīn 성음, 소리, 음성, 목소리

按着 ànzhe ~와 함께, ~따라서

跟着 gēnzhe ① 뒤따라, 잇달아

② 곧, 이어서, 계속하여

③ ~에 의해, ~에 따라

偷竊 tōuqiè 훔치다, 절도하다, 도적질하다

豐盛 fēngshèng 풍부하다, 성대하다

牧人 mùrén 방목공, 목자

撇下 piēxia 버리다, 돌보지 않다

顧念 gùniàn 생각하다, 염려하다

認識 rènshi 알다, 인식하다

另外 lìngwài ① 별도의, 다른, 그밖의

② 달리, 따로

權柄 quánbīng 권력, 권세

附着 fùzhuó 달라붙다, 부착하다

瘋 fēng 실성(하다), 발광(하다)

정신이 이상하다

猶疑不定 yóuyíbùdìng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見證 jiànzhèng 증거가 되는,

증거를 낼 수 있는

永生 yǒngshēng 영생하다

滅亡 mièwáng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奪 duó ① 강제로 빼앗다

② 쟁취하다

③ 잃게하다

(原文)

第十章 ¹ “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人进羊圈，不从门进去，倒从别处爬进去，那人就是贼，就是强盗。²从门进去的，才是羊的牧人。³看门的就给他开门；羊也听他的声音。他按着名叫自己的羊，把羊领出来。⁴既放出自己的羊来，就在前头走，羊也跟着他，因为认得他的声音。⁵羊不跟着生人，因为不认得他的声音，必要逃跑。”⁶耶稣将这比喻告诉他们，但他们不明白所说的是什么意思。

⁷所以耶稣又对他们说：“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我就是羊的门；⁸凡在我以先来的，都是贼，是强盗；羊却不听他们。⁹我就是门，凡从我进来的，必然得救，并且出入得草吃。¹⁰盗贼来，无非要偷窃、杀害、毁坏；我来了，是要叫羊(或作“人”)得生命，并且得的更丰盛。¹¹我是好牧人，好牧人为羊舍命。¹²若是雇工，不是牧人，羊也不是他自己的，他看见狼来，就撇下羊逃走；狼抓住羊，赶散了羊群。¹³雇工逃走，因他是雇工，并不顾念羊。¹⁴我是好牧人；我认识我的羊，我的羊也认识我，¹⁵正如父认识我，我也认识父一样，并且我为羊舍命。¹⁶我另外有羊，不是这圈里的；我必须领他们来，他们也要听我的声音，并且要合成一群，归一个牧人了。¹⁷我父爱我，因我将命舍去，好再取回来。¹⁸没有人夺我的命去，是我自己舍的。我有权柄舍了，也有权柄取回来；这是我从我父所受的命令。”

¹⁹犹太人为这些话又起了纷争。²⁰内中有好些人说：“他是被鬼附着，而且疯了，为什么听他呢？”²¹又有人说：“这不是鬼附之人所说的话。鬼岂能叫瞎子的眼睛开了呢？”

²²在耶路撒冷有修殿节，是冬天的时候。²³耶稣在殿里所罗门的廊下行走。²⁴犹太人围着他，说：“你叫我们犹疑不定到几时呢？你若是基督，就明明的告诉我们。”²⁵耶稣回答说：“我已经告诉你们，你们不信。我奉我父之名所行的事可以为我作见证；²⁶只是你们不信，因为你们不是我的羊。²⁷我的羊听我的声音，我也认识他们，他们也跟着我。²⁸我又赐给他们永生；他们永不灭亡，谁也不能从我手里把他们夺去。²⁹我父把羊赐给我，他比万有都大，谁也不能从我父手里把他们夺去。”

큰 능력의 근원

편집자의 말:

이 두 편의 글은 중국 가정교회 미래 전도인의 간증입니다. 그녀들은 野地神學院 졸업생들입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서 그녀들이 주를 믿은 때부터 전도인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녀들은 시간의 급박함을 느끼고 있으며, 짧은 간증 속에서 전도의 열정이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하의 간증을 읽고나면 이러한 경험이 당신과 나에 비해 어디가 다르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夏 華 文

저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당신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6년 1월 15일 교회에 가서 주일예배에 참가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몇 명의 이름없는 전도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내어 그곳에 오게 되었고, 아주 성령이 충만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였는데 조금도 막힘없이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탄생과 일생의 행적에 대해 간증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혀서 보혈을 흘리며 죽게 되신 것이라고 힘차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죄악의 세계에서 18년을 살았는데 한 시도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없었고,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죄인을 위하여 초조하고 슬픈 마음으로 걱정하시도록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해 구속되는 그날 저는 성령의 빛에 의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셨기에 주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저의 죄악을 회개 하였

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전의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가없이 여기시며,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기도를 열납하셔서 분명히 구원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가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께 큰 죄의 빛을 진 저를 위해 조금도 자신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구속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제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주님이시여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제가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거나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않고 저의 온 힘을 바쳐서 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싶었으며, 제가 영적으로 말라깽이가 되거나 목석같이 둔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저의 호소를 듣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저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갈 수 있겠느냐? 광활한 대지는 모두 황량하여 농사 지을 일꾼이 필요하며, 온 땅에 가득차 있는 길 잃고 유리하는 양을 거두어 칠 목자가 필요한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의 마음은 칼로 베는 것보다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서 저는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청컨대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다시는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을 것이며 저 자신을 버리고, 또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뒷일은 잊어버린 채 당신의 뜻을 향하여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부탁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저는 중국대륙 각지로 가겠으며, 저는 주님의 일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를 넘어뜨리시고, 분쇄하시고, 깨어버리소서. 제가 다시는 저 자신을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고, 저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청춘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보배함을 열어 모든 예물을 드리겠으며, 옥함을 깨뜨려서 나드 향유 전부 주님의 몸에 바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버려 당신의 복음을 온 천하의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자 원하며,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부탁하신 크신 사명을 기꺼이 완성함으로써 주의 상심을 위로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해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안에서 가치있는 생활이 영원하기를
.. 아멘"

저의 일생을
바칩니다

愛 靈

승리의 주님, 주님께 구하건대 저의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대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저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소서.

제가 주의 빛을 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신자가 된 후, 저의 마음 속에는 봉헌의 영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천사의 입을 빌려 봉헌이란 제목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저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절박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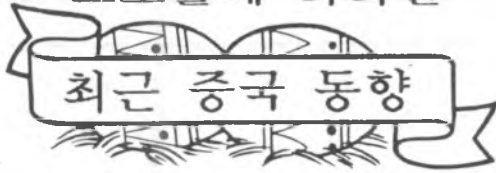
단지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자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에게는 없었으며, 설마 제가 절실하게 원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평온하고 기쁘게 청춘을 주님께 헌납하여 고생할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저의 이 조그마한 마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실지라도 주를 위해 사역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8년의 세월이 마치 한바탕의 꿈과 같이 혼미하게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어찌 어머님의 사랑만 받으면서 죄중의 즐거움을 더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낮의 이 짧은 시간을 따라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저의 영혼을 일깨워 나아가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가치있는 인생으로 살아 나가게 하시고, 당신의 크고 두려운 사명을 저에게 맡겨 주소서! 이 큰 전쟁 중에 가련한 영혼을 구해 주소고,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당신께 간구하건대 주의 이름을 모르는 곳으로 저를 보내어 당신의 양을 치게 하시고, 저의 일생이 주를 위해 쓰여지게 하소서.

큰 전도훈련기관의 필요때문에 교회의 기대가 저에게 모아졌으며, 저로 하여금 일찌감치 복음 전하는 길을 걷게 하였고, 제가 바라는 목적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간절한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나의 이 작은 제물을 열납하소서! 영광과 존귀를 권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 아 멘 -

(中國與教會 v 중에서)





정 치

· 中國 최고 실력자인 鄧小平은 지난 5월 中國 혁명이 일어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臺灣의 한 국민당 당원과 만났다고 월간 「저널리스트」誌가 3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鄧小平(85)이 지난 5월 19일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과거 蔣介石 臺灣총통의 측근이자 자신의 급우인 텡 웨이씨를 한 시간동안 만났다고 전하고 텡씨의 말을 인용, 鄧小平은 中國과 臺灣이 3년내에 통일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990. 11. 4)

· 중국당국은 요즘 14살 나이로 숨진 소녀 하나를 쏘인민과 청소년들의 영웅으로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신문들과 TV방송들은 연일 四川省 출신의 시골소년 라이닝(賴寧)에 관한 얘기를 대서 특필하고 있다. 지난 88년 3월 고향에서 산불을 끄다가 사망한 라이닝은 지난 한달 동안 중국 공산당의 수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제2의 「雷鋒학습」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진압이 있기 직전부터 느닷없이 당국에 의해 「영웅적 소년」으로 부활한 라이닝의 일대기는 최근 국영TV를 통해 4차례에 걸쳐 화려하게 소개됐고, 그의 「모범적 애국심」을 기리는 책만 이미 3권이 나 출간됐다. 중국당국은 필요에 따라 또다른 「영웅」을 발굴, 칭송하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며 라이닝 본받기운동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990. 11. 6)

· 국제사면위원회는 14일 지난해 중국의 민주화 시위 유혈진압 당시 체포됐던 반체제인사 수백명이 「사라져 버렸으며」수명의 민중지도자들도 곧 비밀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입수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밀 재판과 장기 복역을 받게될 사람들 중에는

학생 지도자 王丹, 문학비평가 리우 차오보, 그리고 노조지도자 한동팡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행에 옮겼던 수백 명의 민중들이 체포 1년이 넘도록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990. 11. 5)

· 中國은 곧 대규모 국무원인사조치를 단행, 錢基探 외교부장(62)을 국무원 부총리로 기용하고 외교부의 劉華秋 부부장을 외교부장으로 승진시킬 것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紙가 21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1990. 11. 21)

· 중국 최고실력자 鄧小平은 毛澤東과 같은 노인병으로 말을 잘 못하고 침을 흘리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홍콩 經濟日報를 인용,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군이 만일을 대비, 1급 경비태세에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鄧小平의 증병은 거의 틀림없는 것 같다고 지지통신은 밝혔다. (중앙, 동아일보 1990. 12. 5)

경 제

· 한국과 중국 양국이 올해안에 각각 북경과 서울에 무역대표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쌍방 무역대표사무소의 명칭은 각각 대한무역진흥공사 駐北京대표부, 中國국제상회 駐서울대표처로 하기로 하고 정부공무원을 포함, 각각 20명내의 상주직원을 두기로 했다. 무역대표사무소는 양국간 경제·무역증진과 과학기술등의 교류촉진을 주요기능으로 하기로하고 査證(비자) 발급업무 등 영사기능을 포함하는 정부위임업무도 수행하기로 했다. 韓中양국은 그동안 경제교류를 계속 확대, 작년엔 교역규모가 31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의 무역대표사무소 개설합의로 양국간 전면 경제교류와 함께 공식학교수립 전망

도 한층 밝아졌다.

(중앙, 국민, 조선일보 1990. 10. 20)

·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5위 무역상대국이며 전체 북방교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22일 상공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말까지 對중국 교역규모는 19억1천3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 동기 교역증가를 1.8%에 이어 거의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다.

對중국 수출부진이 88년말 이후 계속돼 온 것은 중국정부 긴축정책의 영향에 따른 것이며 올해의 경우 특히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의 경우 섬유원료와 사료용곡물등 1차산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증가추세로 특히 원유와 시멘트 수입이 급증했다.

교역형태별로는 직접교역의 비중이 크게 확대, 올들어 7월말까지 51.1%로 나타나 88년의 33%와 89년의 39.2%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일보 1990. 10. 22)

· 중국 최고실권자 鄧小平은 보다 신속한 국내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을 촉구했다고 중국관영통신新華가 10월 22일 보도했다.

黨총서기 江澤民도 한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경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경제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했는데 이같은 신속한 경제개혁 촉구는 지난해 천안문 사태 이후 촉출된 前총서기 趙紫陽이 지난 87년부터 앞장서 내세우던 슬로건으로 이같은 슬로건의 재등장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선일보 1990. 10. 23)

· 李鵬 中國총리는 10월 24일 앞으로 10년간 중국경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中國 정부내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李鵬 총리는 이날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있는 한 민간단체가 주관한 한 경영자 회의의 연설에서 이처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李鵬총리는 외국기자들의 출입이 제한된 이날 연설에서 또 중국의 농촌과 도시에서의 사유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상품가격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가격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 중앙일보 1990. 10. 25)

· 中國 정부는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산정권 수립 후 41년만에 처음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밀과 쌀, 보리 등 주요양곡의 배급가격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농업부의 고위관리들이 26일 말했다.

(조선일보 1990. 10. 28)

· 중국은 11월 2일을 기해 내수용 연료의 1백% 인상을 포함, 면직물 설탕 철제식기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30~1백% 인상할 예정으로 있어 엄청난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1990. 11. 2)

· 中國은 날로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8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91~95)중에 세계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 조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홍콩의 親중국계 경제주간지 經濟導報가 12일 보도했다.

중국사정에 밝은 이 경제전문지는 이날 출간된 최신호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무원 직속기관인 國家稅務局은 조세수입이 국가세입의 28%를 차지하도록 그 규모를 인상해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1990. 11. 13)

· 中國의 元貨가 17일부터 美달러貨에 대해 9.57% 평가절하된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11개월만에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元貨 평가절하 결정이 「중국의 경제 및 통화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환관리기구인 國家外換管理局에서 내려졌다고 전했다.

작년 12월의 원화 평가절하이후 중국의 수출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작년 同期에 비해 16.7%가 늘어난 반면 수입은 20.3%가 줄어들었다.

(국민, 동아, 중앙일보 1990. 11. 17)

· 中國은 2일 미국에 대해 對중국 경제·정치 재제조치들을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中國日報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 중국은 美·中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에 대해 취해 온 재제조치들을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0. 12. 3)

사 회

·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나는 인구야말로 중국의 최대 고민거리다. 중국은 지난 79년부터 「1가구 1자녀 갖기운동」을 汎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들을 선호하는 中國人들의 봉건적인 관심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中國국무원에 제출된 인구센서스의 중간집계는 14억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정부는 이 엄청난 통계자료에 아연실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정부가 89년 발표한 11억1천1백91만명의 인구추계에서 1년만에 3억명 이상이나 늘어나게 된 것은 이른바 헤이하이즈(黑孩子)라 불리는 無호적아가 엄청난 숫자에 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일보 1990. 10. 12)

· 중국산 우황청심원등 한약에 납·수은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는 등 가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는 「동인당」 제품에서 구리가 1백23ppm이나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맹독성 중금속인 수은은 동인당 제품에서 2.5ppm, 천진제품 2.6ppm, 심양제품에서는 1.9ppm이나 검출됐다.

이밖에 모든 우황청심원에서 필수성분인 우황과 사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가짜임이 판명됐다. 이에따라 파고다공원, 덕수궁, 남대문주변의 한약상과 관광호텔 구내약국등을 단속키로 했다. (국민, 중앙일보 1990. 10. 17, 조선일보 1990. 10. 18)

· 韓國과 中國간의 관계 개선과 함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인, 중국거주 교포 등 유·무자격 한의사들이 국내에서 불법의료 활동을 하는등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유·무자격 한의사는 친지 방문이나 관광·초청등의 명목으로 입국, 은밀하게 불법의료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일부 한의원이나 관광사들은 이에 편승해 中國의 유명 한의사를 초빙, 환자들을 모집해 치료를 받게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 1990. 10. 28)

·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교포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높은 임금을 받

기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일고 있는 것은 최근 당국의 역제로 한약재반입이 어려워진데다 중국산약재가 인체에 해롭다는 보도 등으로 판로가 막히자 중국보다 임금수준이 훨씬 높은 한국에서 목돈을 마련해 보려는 생각 때문이다. 취업교포들은 주로 국내친척의 알선으로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의 식당, 남대문시장의 상점, 시내각지의 소규모 공장과 공사현장 등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0. 11. 12)

· 90년도 中國인구조사결과 중국거주 한국동포인 조선족은 1백92만5백9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에 16일 배포된 중국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해외판)의 인구조사 제3차 발표에 따르면 조선족은 82년 1백76만6천4백39명에서 8.73% 증가했으며 중국내 56개민족중 14번째로 숫자가 많은 민족이다.

(동아일보 90. 11. 16, 중앙일보 90.11.17)

· 서울시는 30일 정부가 중국교포 노점상들의 한약재를 사주기로 한 방침에 따라 26억원의 예산을 책정, 10일부터 15일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선별매입키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교포 1인당 1백만원 한도내에서 우황청심환 편자환 등 완제품을 모두 사주기로 하는 등 세부방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응답, 해신구, 산삼, 사향, 호피, 그림 등 사치성 또는 감정이 곤란한 고가품목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한 교포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매입한 한약재를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성분검사를 거쳐, 유해품은 폐기처분하고, 합격품은 불우시설 등에 나눠주기로 했다.

(조선일보 1990.12. 1)

· 대한적십자사(총재 金相浹)가 중국거주 교포의 한약에 대한 매입을 시작한 10일, 매입장소인 서울서대문 적십자병원 구내 적십자간호전문대 건물은 한약을 팔려나온 중국교포들로 붐볐다. 교포 1천5백98명이 몰려와 이들중 선착분 1백73명만이 매각절차를 마치고 지급받은 은행금 전표로 지정은행에서 1백만원 한도의 대금을 받았다. (조선일보 1990. 12. 11)

중 고

· 중국 크리스찬이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신입당원수는 급격히 감소하고있다.

1984년, 85년, 86년 3년 동안 중국공산당에서는 최고경영진과 과학자, 학자들의 지식인 입당을 늘리기 위하여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지만 결과는 북경은 45% 감소, 천진 80%, 광서는 75%, 청도는 14%, 남경은 79%, 상해 28% 감소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반면 기독교 개종자 숫자는 놀랄만큼 증가하고 있는데 1984년, 85년, 86년을 대비해 보면 북경 2.7배, 광주는 2.5배, 청도는 5배, 상해는 1.9배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종교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독교인은 1천만을 넘어섰고 그 가운데 45% 이상이 청년학생층이라는 것이다. (새누리신문 1990. 10. 13)

· 앞으로 중국내에서 외국의 기독교단체나 인사들의 선교활동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인민일보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위원회(삼자교회)의 간부인 竹暗冷子씨는 최근 특별기고를 통해 「외국 종교단체나 인사의 기독교적인 간섭을 반대하며 선교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민일보는 「중국의 기독교는 40년 전 자치, 자양, 자전의 삼자원칙을 고수하면서 탄생했으며 외국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도하고 「외국기독교의 중국내 활동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결국 중국의 기독교는 공산혁명의 승리와 삼자원칙 아래 발전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인민정부와 사회주의가 없으면 중국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1990. 10. 18)

· 우리나라 기독교농촌선교 및 훈련단체들이 중국에 대규모 공동체조직을 만든다.

신앙을 바탕으로 한 농촌공동체운동을 펴고 있는 「두레마을공동체」(대표 김진홍 목사)와 가나안 농군학교(이사장 김종일 목사)는 최근 중국정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갖고 각각 중국 길림성과 산둥성에 기독교 공동체 조직 및 농촌지도자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특히 두레마을은 지난해 길림성 정부관계자들이 경기도화성군의 두레농장을 직접 방문.공동체생활 및 운영실태를 돌아본 후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가 내년부터 두만강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길림성지역에 5백만평을 개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홍목사는 이와 관련, 「중국정부가 공산주의 이념하의 집단농장은 실패했는데 두레마을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전하며 「그 성공의 비결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길림성 공동체의 성공을 통해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가나안농군학교 김범일교장은 「중국정부가 낙후된 근로자 교육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함에 따라 이 계획이 추진된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현지에서 기도와 호미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갖고 스스로 잘살기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일보 1990. 11. 20)

經文背誦(성구암송)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若有人在基督裏，他就是新造的人；舊事已過，都變成新的了。(哥林多後書 5:17)

Ruò yǒu rén zài Jīdū li, tā jiù shì xīnzào de rén; jiù shì yǐ guò, dōu biàn chéng xīn de le.

(Gēilīnduōhòushū 5:17)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 지게 하소서

강 정 애 (본 선교회 회원)



동서시대의 종식이라는 역사의 장을 넘기는 이 시점에서 중국을 방문한 날은 열 하루 밖에 안되는 짧은 날이었지만 공산이론의 실패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시행된 정책의 끊임없는 실패로 낙후된 경제는 천진에 도착하자마자 느낄 수 있었다.

아시아 게임을 위해 서둘러 만든 고속도로로 북경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Gate는 8개 였지만 통과차는 우리차 뿐이었고 간혹 트럭이 한 두 대 보이다가 사라졌다. 언덕도 없이 곧게 뻗은 도로 양쪽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들에 해바라기, 옥수수, 수수밭이 펼쳐져 있었고 벽돌로 지은 나지막한 집,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없는 낡고 창문이 깨진 집, 그리고 이따금씩 큰 공장들이 도로변에 있는 것이 보였다. 무엇보다 아까운 것은 경작을 하지 않은 토지들이었다. 이 넓은 토지를 두고도 60년대 이후 농산물을 수입국으로 변모하고, 국민 소득의 끊임없는 감소와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음은 자본주의가 저절로 멸망하리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어처구니 없음을 증명한 것이 아닌가.

북경시내로 들어오자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 군데군데 보였다. 집세는 한달에 15원에서 20원정도, 아시아 게임을 위해 작년 천안문 사태 이후 인민들의 힘을 모아 1년만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다. 막 만든 육교는 겨우 몸체만 갖추었을 뿐 단장을 못한 것들도 더러 보였다. 번역일을 하는 안내원은 20년을 북경에 살았지만 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자기도 길을 모를 때가 있다고 고백했다.

도착한 호텔은 북경 중심지에 있었고 일본과 기술합작하여 지은 새 건물이었다. 꼭 휴지, 칫솔, 치약, 비누, 양산 등을 가져 가라고 해서 넉넉히 준비했는데 욕실에 마련된 휴지와 골게이

트치약, 샴푸, 린스, 목욕가운, 잠옷 등을 보니 괜한 물건을 가져 오느라 헛수고 한 것 같아 맥이 빠졌다.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했던 우리는 이곳이 체제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마냥 내집마냥 즐거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서야 비로서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님을 알았다.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했는데 스카프에 그려진 중국국기 옆에 있는 대만국기를 인정할 수 없으니 스카프 사용을 중지하라, 성경책 전달을 금하라, “上帝愛中國”라는 책은 불온서적이니까 소각하라는 지시가 우리를 당황케 했다. 그래서 우리는 현지 선교사님께 물품 전달을 부탁하려고 개인이 소지한 선교용품들을 모았다. 성구를 인쇄하여 포장한 비누, 볼펜, 스타킹, 신구약성경, 신앙서적, 시계, 라디오등이 호텔방을 채웠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개인행동이 지도자들을 가슴조이게 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말씀을 앞세우고 몇몇 전도 특공대들은 선교용품을 따로 보관하면서 전달하다가 공안원들에게 잡혀갔다. 석방을 위해 안내원과 여행사측이 변명을 해주었고 우리도 특별히 주의를 했지만 가는 곳마다 한 두명이 잡혔다가 조서를 쓰고 풀려났다. 한 안내원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으면서 비난하기도 했다. 안내원들은 거의가 처음 안내를 맡아서 서툴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자신의 한국어가 맞는지 틀린지조차 모르겠고, 모르는 단어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가 남한에서 온 손님인 줄 모르고 나왔다고 했다.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가 뭐냐고 물어 보았고, 그들은 교회라는 말도 몰랐다. 몇몇 안내원은 남한, 대만, 일본의 경제 사정을 조심스레 물어왔는데

눈부시게 발전한 일본, 대만의 경제 성장, 고르바초프 미국 방문등 국제정세 등을 전혀 몰랐다. 북경에서는 영어 안내원이 나왔는데 늘 번득이는 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 차안에서 김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찬양하셨다. 안내원들은 목사님이 잘 생기고 목소리가 참 좋다고 감탄을 하면서 그 노래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마침 외워 둔 시편23편을 암송해 주었다. 이어 목사님 모친의 찬양이 있었는데 나이가 65세라고 했더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의아해했다. 정정하신 72세의 안권사님, 아가씨같은 40세의 집사님 등 나이와 그들의 모습을 비교하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들에게서 처음 보는 솔직한 인간의 감정이었다. 고궁관광 후 한 분이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아 20여분 기다렸다. 한사람을 기다리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안내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어려서부터 수십겹 쌓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벗기는 것은 이론이 아니었다.

시속 40km로 이화원을 향하면서 창밖에 자전거를 타는 이들과 행인들한테 눈이 마주치면 손을 흔들고 웃어 주었다. 이상한 듯 보다가 마치못해 웃는 사람, 한참 지나서야 손을 흔드는 사람, 끝내 무표정한 사람, 간혹 중고등학생들은 즉각적으로 손을 흔들며 활짝 웃어 주었다.

주일날은 승문문교회 11:30 예배에 참석했다. 성가대의 '할렐루야' 찬양과 요한복음15장 강해설교가 있었다. 주보는 없었고 성경찬송도 없이 온 사람이 많았다. 내 옆에 앉은 아가씨는 대학생이었다. 강단 옆에 써 있는 임마누엘(以馬內利)을 읽으며 인사를 나누고 나서 그의 남은 성경책을 내가 가진 새것으로 바꿔 주었다. 예배후 매점에 찬송가를 사러 갔는데 찬송가가 없어서 못샀다. 일반서점에서는 찬송가를 살 수 없다면서 자기 것을 주었다. 돈을 주려고 했더니 극구 사양해서 얽치 않았지만 감사히 받았다. 우리와 좀 오래 이야기하면 안내원이 불러내서 주위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었더니 안내원이 그것을 빼앗아 갔고, 장애자에게 준 돈도 가져 갔다고 했다. 오후 1:30에는 북경에 거주하는 조선족 예배가 있는데 다른 일행이 참석했다. 예배후 손님으로 오신 분은 앞문으로 나가라고 했다. 남은 사람들 중에 연변서 온 7명의 신학생이 그자리에

서 퇴학을 당했다. 이유인즉 3주전 '한국교회의 중국침투를 막자'는 상해 삼자교회 지령에 의해 아시안게임 기간에 외국 종교인과의 접촉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밤에 호텔로 지하교회 교인이라면서 낮에 승문문교회에서 보았던 낯익은 한 분과 다른 두 분이 십자가 뺏지를 달고 안전도사님을 찾아왔다. 안전도사님이 안계셔서 그냥 갔지만 십자가 뺏지가 마음에 걸렸다. 상해에서도 도착하자마자 십자가 뺏지와 십자가 바클을 한 사람이 찾아 왔다. 상해 조선족 지하교회 교인인데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이 있으니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면서 우리 안내원한테는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상해 공안부에서는 대표 목사님을 호출해서 전도는 하지 말고 호텔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라고 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안에서 사업차 17번 중국을 방문하신 분을 만났다. 중국 방문 소감을 나누다가 풍부한 천연자원, 광대한 토지, 수많은 인구를 가진 이 나라가 경제만 발전하면 무서운 나라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지만 쉽게는 안 될 것 같다고 대답하셨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월급이 같고 배급이 나오니까 일에 의욕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건국 이래 당이 인민에게 요구한 것은 오직 복종뿐이었고 공산당이 죽여 놓은 정신은 이대로 자본주의가 되면 능동적, 자발적으로 일을 못하고 그대로 죽는 인구의 수를 50%는 보아야 한다는 것과 이번 방문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중국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하시면 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감사하셨다.

보내시는 분, 보냄을 받은 자, 복음을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야 한 생명이 찾아진다. 보내시는 분은 일군을 찾으시고, 듣지 못한 자는 수역에 이르는데,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열심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져 가는 생명들을 위해 일할 일꾼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비행기 안에서 민권사님이 하신 기도가 귓전에 맴돈다.

"이곳이 어디인데 여기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송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곧 기적입니다. 공중에는 악의 영의 상징인 용이 떠 있고 온갖 악령이 주장하고 있지만 택한 백성 찾으시는 당신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되게 하소서,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고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

대만 기독정병훈련을 다녀와서

8월6일-8월22일 (16박17일)

이 민 선(본 선교회 회원)



지금도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 그때 일이 그림고 가슴이 쫓는다. 타이중(台中)에 있는 謝衛記念營地에서 1주일간 훈련을 받고 팀으로 나뉘어져 각 교회와 연결되어 전도를 하는 것이었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기엔 내마음이 너무 닫혀져 있었고, 타이중(台中)의 첫날 밤은 너무나 서럽고 괴로워서 피곤한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8월 7일 아침 얼떨결에 일어났는데 6시가 채 안되었다. room-mate 들과 얼굴 안 마주치려고 (말을 해야 하니까) 일찍 성경책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Q.T.를 하고서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훈련지를 한바퀴 둘러보았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웃으며 지나치다가 할 수 없이 '早安' 한 마디만 하고 얼른 들어와서 Work Book을 챙겨서 함께 온 한국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 아침 죽을 먹었다. 그러다 다시 홍콩친구, 대만친구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 하루도 안 지났는데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친숙해져서 잘 못하는 영어, 중국어, 손짓 발짓 등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홍콩 친구들의 광둥어 발음은 노래하는 기분으로 성조 흉내나 낼까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 영어는 피차 일반에 어쩌다 대만 자매들을 만나면 서로간에 얼마나 의사가 통하고 또 그들의 말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들을수 있어서 괜히 반가와서 껴안고, 손을 꼭 잡았다. 아! 나는 이때 얼마나 희망적이었는지.

생각해 보니 언어때문에 너무 걱정하느라 나의 마음이 닫혀져 있었던 첫날의 내 모습에 대해 Room-Mate들 한테 너무너무 미안했다.

아침 식사후 8:30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여 간단한 설교말씀, 복음에 대한 여러가지 전도법 등을 배우고 12시에 점심식사, 2시까지 낮잠시간, 그 후에 전도법 실습등 팀별준비, 6시 저녁식사, 7시부터 중화 문화와 민간 종교에 대해, OM에서 준비한 세계의 모습들에 관한 SLIDE자료 감상 등으로 하루를 보냈다.

1주일 동안의 훈련중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찬양할 때였다. ASIA의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마다 다른 여건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 자리에서 서로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순간, 정말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서로가 사랑의 띠로 하나님을 확인하며, 특히 MOSLEM국가나 대만 등 기독교가 적은 나라 사람들을 보고 한국의 기독교도들은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고집부리며 신앙생활을 어줍잖게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피곤속의 인내, 언어의 무능력으로 인한 순수한 절대 순복의 시간들, 각 조별로 타이베이(台北) 각 도시별로 흩어지기 전 금요일 밤의 FESTIVAL, 팀들끼리 발표회와 출신국가의 소개시간, OM지도자들도 합세한 굉장한 질적, 양적으로 높은 수준에서의 코이노니아 시간도 있었다. 토요일에 각 도시별로 흩어지기를 아쉬워하며 선물, 주소 등을 교환, 또 이 얘기 저 얘기에 시간은 없고 참으로 안타까웠다.

토요일, 臺北행 1호차에 내가 속한 14조(나를

포함하여 4명)가 왔다. 우리를 초청한 門徒教會의 자매가 마중나와 같이 교회에 도착하였다. 토요일 청년 모임이 곧 시작될 예정이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오자마자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소그룹 모임에 끼어서 잔뜩 주눅들었다가 모임이 끝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 또 금세 친해졌다.

교회의 사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 주어서 각각 독방을 쓸 수 있었다. 주일날, 본 예배가 9:30에 있었다. 청년들이 대부분인 이 교회에서는 어른이 몇 안되어 청년부예배 분위기 같아서 자유스럽고 편했다. 목사님(唐台生 牧師)의 설교 말씀이 있었다. 첫 주일은 학개 2:8-9, 둘째 주일은 스가랴 4:6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성가대의 찬양도 좋았으며,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좋았다.

13일 월요일에 小鳥來로 교외여행을 마련해 주어서 摩托車를 타고 다니며 폭포수, 공원에도 가고 하루를 쉬었다. 14일 화요일부터 아침일찍 Q.T.한 것을 나누고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근처의 공원, 예술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아침부터 탕고 등 서양춤을 배우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또 노인과 어린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전통적으로 해, 달, 조상신을 섬기는 기성세대들이었기에 전도하기는 확실히 힘들었다. 외국인에 대한 예우로써(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단 얘기는 다 들어 주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대부분 거절했다.

그러나 젊은 청년, 학생들은 확실히 쉽게 받아들였다. 특히, 어린이들은 얼마나 내 수준에 어울리는지 그들에게는 천천히 말해 달라고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을 잘 하고 우리의 말을 쉽게 받아들여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어주었다. 처음 우리와 함께 했던 교회 청년들은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말을 걸 때 신기한 듯 내 얼굴과 저쪽 얼굴을 번갈아 보며 신기해했다. 교회 자매인 聖慧가 드디어 無字天書(글 없는 책)를 가지고 어린이들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점차 다른 청년들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 즐거웠다. 중고등학생들은 조금씩 세상과 삶에 대해 회의하며 고민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인간의 삶에 대해 얘기할 때 참으로 진지한 자세였고, 국어(중국어)를 읽을 줄 알고 영어에 관심이 많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어른들에 비해 성과가 있었는데, 어른들은 성경을 읽어 보라고 권해도 글을 읽을 수도 없었기에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

16일 저녁에 교회에서 금식기도회를 가졌다.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으로 모여 돌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열기가 아직도 뜨겁게 느껴진다. 막 도착하여 청년모임에 참석하고, 피곤에 겨워 公寓(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부리나케 씻고 잠을 자고, 어느새 아침이 되면 먹고, 전도하고, 교회 청년들과 나누었던 교제의 시간, 그리고 함께 완전히 중국어로 기도하고 찬양, 설교하는 시간이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생소하기도 했던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된다. 16일 저녁부터 조금씩 비가 왔다. 18, 19일(토, 일)은 특별 집회로, 전도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좋은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애석하게 19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겨우 주일 예배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팀은 그 시간에 교회 사람들에게 감사의 정으로 Farewell Party를 간단히 가졌다. 그동안의 우리의 일을 정리하고 교회 청년들과 선물, 주소등을 교환하며 일단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비로 인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도저히 그냥 앉아서 즐기고 뭇하고 비 구경 하기엔 좀 억울한 생각이 나서 근처에 있는 중원대학에 두 형제와 함께 비가 약해진 틈을 타서 Campus구경을 할 수 있었다. 일정을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가 되니 그야말로 시원섭섭했다. 생판 모르는 도시에서 오직 주님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면서 편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렸다. 타이중(台中)에서부터 입에 맞지 않는 기름진 음식이 힘들었지만, 역시 두 주일은 귀를 트이기에, 中歷市를 제대로 돌아볼 여유도 없이 너무 짧았다.

내가 門徒教會를 떠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중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을 전해야 할 필요때문에 그들을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주

님을 공유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어느 지방에 와 있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나라 타이완(台灣), 큰 도시든 작은 마을이든 상점 한 쪽이나 가정 가정마다 “빠이빠이”(拜拜)에 급신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이 곳에 영적, 인간적인 미련만 남아 오히려 허무해졌다.

20일 월요일 타이중(台中)의 寶島大飯店(Formosa 호텔)에서 90 Taiwan Summer Campagn 팀들을 다시 만나 회포를 풀고 있으려니까 또 기분이 묘해졌다. 이미 중리를 떠나 타이중에 와 있으면서 門徒教會와 교회청년들, 특히나 내 전용 摩托車 기사였던 明芳과 다정했던 秀琴, 文發, 志剛이 새롭게 생각되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함께 동역하는 동안 발음이 듣기 힘들어 꼭 필요한 말만 했던 샤오핑과 진작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이다.

겨우 호텔방에서 조금씩 여유있게 대화하다가 21일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영어와 중국어로 아쉽게 서로에 대해 영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훈련 중에 귀찮고 자신이 없어서 위축되려 할 때 주신 말씀 ---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 하였으니 그야말로--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 붙여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전 1:5-9)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며 뒤에서 기도로 협력해 주셨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

하나님의 사랑은

송 명 희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반석 같아서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고
나의 힘을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생기로 숨쉬게 하고
나의 혼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나의 영혼을 뛰놀게 하며
내게 희락 충만하게 하신다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 활동 상황

▣ 방송통신대학 중국어과 성경반 ▣

1984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중국어과가 신설된 이후, 1985년 박성주 교수님의 기도의 결실로 "방송대 중국어성경반"이 탄생되었다. 학과 사무실에서 10여명이 모여 중국어 성경을 공부 하면서 중국선교의 비전을 갖고 시작되어, 6년이 지난 지금 200여명의 회원이 성경반을 거쳐갔다. 「중국어 성경반」이 작은 불씨가 되어 「중국어문선교회」라는 큰 열매가 맺어졌다.

박성주교수님을 비롯하여 이동화, 이금복, 박미라, 임신희 등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힘입어 초대 전예인(도미중), 2-3대 이성철, 4-5대 김용배, 6대 박지석씨 등이 회장이 되어 봉사하였다. 현재 「중국어 성경반」은 박성주교수님 지도아래 세분의 선생님과 밝고 젊은 남,녀 20-40대의 다계층적으로 회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彼此相愛」라는 제호아래 「선교」, 「친교」, 「어학」을 모토로 사랑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어성경반」은 중국어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거나 타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참석할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주요사업

- 선교: 극동방송극 선교헌금
중국어문선교회 선교헌금
「사랑의집」 봉사활동
산상철야기도회
신앙강좌 및 수련회
신·편입생 전도
- 친교: 야유회 및 수련회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축하행사
생일축하
- 어학: 중국어 성구암송
중국어 성경공부
중국어 찬양

지도교사 약력

- 박성주교수: 중국사법대학 박사
현 방송대 중국어과 학과장
중국어성경지도
- 이금복선생: 중국보인대학 석사
사랑반: 고급중국어지도
- 박미라선생: 대만정치대학 학사
소망반: 중급중국어지도
- 임신희선생: 외국어대학 학사
믿음반: 초급중국어지도

7대임원진(91년)

- 회 장: 문 승 민 (4년)
- 부 회 장: 김 순 임 (5년)
- 총 무: 김 정 선 (2년)
- 서 기: 김 준 미 (4년)
- 회 계: 원 유 양 (4년)
- 학 습 부 장: 한 종 속 (3년)
- 봉 사 부 장: 민 경 석 (2년)
- 음 악 부 장: 남 현 정 (4년)
- 편 집 부 장: 이 시 연 (2년)

집 회 안 내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 장소: 동송교회 교육관 (방송대 뒷편)
- 진행: 1부- 찬양, 기도, 친교
2부- 성경연구 발표 및 교수 지도
3부- 분반공부(믿음반, 소망반, 사랑반, 연구반)
- 교재: 믿음반- 중국어 초급 I, II
소망반- 성경이야기
사랑반- 上帝愛中國
연구반- 교재번역

□ 서울대
중국어 성경반 □

김성곤 형제를 중심으로 5,6명의 중문과 학우 및 타과 학우가 참여하여 매주 화요일 6시 인문대 1동 101호에서 성경반 모임을 갖고 있다. 마태복음 공부와 아울러 중국 국민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주음부호와 간단한 중국어를 익히고 있다.

성경반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교내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방학중에도 계속할 예정이다. 특별히 중국어문선교회에 대학 중국어 성경반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어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이들로 선교 비전을 발견해 나가게끔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 인하대
중국어 성경반 □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산하의 성경반이 방 송통신대, 서울대에 이어 세 번째로 작으나 힘찬 뜻을 올리며 주님의 '차이나' 바다를 향해 준비된 고기를 낚으러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세 명으로 출발한 우리모임은 이제 다섯 명으로 불었고 모든 회원이 꾸준히 나오지는 못하지만 모임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 일꾼을 보내어 주실 것과 중국어성경반이 정착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다. 우리 모임은 중국어성경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어나가고 있으며 매주 한 구절의 중국어성경요절과 한 곡의 중국어찬양을 배우고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教問題"를 운동중에 있다.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갖고 있으며 인천의 모임을 갈망하고 있고, 더 많은 형제자매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 전국대학의 중국어성경반은 본 선교회에 자신의 활동상황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본 선교회는 이를 회지에 소개함과 아울러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각 부서 활동보고

□ 번역 - 출판부 □

11월부터 <宗教的中國傳統文化>를 번역부 스터디 교재로 삼고있다. 각자 맡은 분량을 번역해 와서 운동하며 문장을 다듬는 공부를 하고 있다. 참여회원은 빈미정, 박혜영, 이민선, 이영순, 노재은 등 다섯 명이다. 시간이 가능한 회원들의 더 많은 참여를 바란다. 모임은 예전과 같이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 세시 선교회 사무실에서 갖고 있다. 뜻있는 분들의 동참을 환영한다.

□ 연구부 □

연구부에서는 "중국선교핸드북"교정 작업, 특히 2차교정인 내용 교정을 마치고 원고를 두란노서원으로 전달하였다. 연구부에서는 그동안 선교회원들의 도움을 얻어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라는 첫 중국어문선교회 선교자료시리즈를 내었으며 후속 선교자료시리즈로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林治平교수의 논문을 내려고 준비중에 있다.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教問題"라는 중국의 종교정책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가 모아진 책을 운동중이다. 연구부는 첫째, 셋째주 토요일 3시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연구부의 기도제목은 연구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헌신되어진 일꾼을 보내어 주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연구부일이 체계있게 분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라는 기도이다. 또한 연구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연구부원들이 모임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 □

교육부에서는 1월 7일부터 실시되는 제3기 선교중국어연수를 위하여 포스터 제작 및 각 대학과 교회에 부착하고 발송하는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은 연수를 위해서 기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중급B반에 사용할「睡夢鄉」의 聽寫작업이 완료되고 타자가 진행중입니다.

재정보고 (10월)

수 입	지 출
전 월 이 월 -216,020	사 레 비(4인) 800,000
특별헌금 1,000,000	인 쇄 비 179,550
(레이저프린터)	노인회 지원금 10,000
감 사 헌금 1,074,540	도 서 구 입 37,440
(창립1주년)	철야기도회장소비 10,000
후 원 금 1,168,000	통신비(전화, fax) 78,830
	구 독 료 3,000
	복리후생비 44,290
	교육비(세미나참가)20,000
	소 모 품 비 68,950
	우편발송료 104,240
	프린터예치금 1,000,000
	신고여행예치금 150,000
	창립예배비용 198,910
	선교소책자인쇄비 165,000
수 입 계 ₩ 3,026,520	지 출 계 ₩ 2,870,210
	차기이월 ₩ 156,310

♡ 후원자상황(10월) ♡

고희정, 김구성, 김승원, 김성순, 김영숙, 김근수, 김학주, 김순임, 김의득, 김한성, 김순자, 김승심, 김호경, 노숙자, 노재은, 문정희, 민 진, 박동화, 박미라, 박성주, 박지석, 박종표, 박정숙, 박지환, 박혜영, 박선남, 박주서, 박순희, 박정옥, 반미정, 서 진, 서옥희, 신순남, 신홍식, 석귀희, 이지순, 이영규, 윤연자, 양혜선, 이동화, 안병국, 윤영자, 윤명자, 이의선, 이은자, 이영희, 이영숙, 이승열, 이석영, 임종명, 전옥규, 정재순, 장경순, 강정애, 장영숙, 조재웅, 최순환, 한승희, 한복희, 홍성배.

- 무명: 후암동.
 단체: 동승교회, 신림교회, 충정교회, 평산교회.
 ◎특별헌금(레이저프린터기일부): 한승희.
 ◎감사헌금(창립1주년): 구규식, 김신봉, 김학인, 경봉현, 김치수, 羅建培, 남정운, 남정옥, 노숙자, 박 호, 박혜성, 박성아, 박지희, 박애숙, 신현학, 정재순, 정중용, 오명미, 이민수, 이민우, 이성철, 이영숙, 이지순, 이 철, 유달현, 윤명자, 윤영자, 서 진, 한관수, 한선옥.
 무명: 다수.
 ◎축전: 박경희, 세계성신클럽(안준배목사).
 ◎화환: 한승희, 중국복음선교회. ◎꽃꽂이: 임종명.
 ◎도서8권기증: 김피득. ◎간식: 서 진.

특별기금적립현황(10, 11월)

명 목	수 입	지 출	잔 액
신고여행예치금	300,000		890,000
현지사역자위헌금	52,000		144,160
출판헌금			1,201,000
사무실마련비	510,000	3,000,000	-1,490,000
레이저프린터기대금	1,000,000		1,000,000
중국교포선교회금			125,000

* 수재헌금을 중국교포선교회금으로 용도변경합니다

재정보고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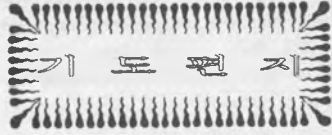
수 입	지 출
전 월 이 월 156,310	임대로(17-30) 130,000
사무실마련헌금 500,000	사레비(7인) 1,100,000
후 원 금 1,214,000	고재개발비 100,000
현지사역자를 위한헌금 52,000	연 로 비(12월) 109,200
	도 서 구 입 15,140
	교육비(세미나) 30,000
	세미나강사로 30,000
	교재, 테이프 40,000
	구 독 료 37,600
	철야기도회장소비 15,000
	비 품 65,000
	인 쇄 비 29,850
	우편발송료 49,400
	소 모 품 비 25,300
	복리후생비 49,820
	통신비(전화, fax) 63,950
	신고여행예치금 150,000
	타선교회지원금 20,000
	사무실마련비 500,000
	여비교통비 9,000
	사진현상료 8,600
	이사비용 162,000
	광 열 비 21,300
	현지사역자를위한 헌금예치금 52,000
수 입 계 ₩ 1,922,310	지 출 계 ₩ 2,813,160
	차월이월 ₩ -890,850

♡ 후원자상황(11월) ♡

- 구규식, 고희정, 김근수, 김승원, 김영숙, 김정하, 김학주, 김순임, 김성순, 김의득, 김승심, 김호경, 김길자, 김한성, 강정애, 노숙자, 노재은, 문정희, 민 진, 박동화, 박성주, 박종표, 박혜영, 박지석, 박선남, 박순희, 박정옥, 박애숙, 반미정, 서 진, 서옥희, 신순남, 신홍식, 신성규, 석귀희, 성석훈, 안병국, 양혜선, 윤명자, 윤연자, 이덕형, 이지순, 이성철, 이의선, 이영희, 이동화, 이영숙, 이은자, 임종명, 임순자, 전옥규, 정영란, 정재순, 장경순, 최근순, 한승희.
 무명: 의정부.
 단체: 동승교회, 신림교회, 평산교회, 치과의료선교회.
 ◎특별헌금(사무실마련): 윤명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 2:4



1. 宜敎中國語研修를 위하여

1991년 1월 7일 제3차 宜敎中國語研修가 개강됩니다. 초급A, 중급A, 중급B, 각 반별 2명씩 모집합니다.

- 1) 선교에 소명있는 자가 참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 2) 강사 선생님들의 건강, 지혜, 시간을 주셔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 3) 교통이 편리한 좋은 위치에 강의 장소가 마련되도록...

2. 12월 中國宜敎세미나를 위하여

12월 17일 7시에 방지일 목사 (본 선교회 고문)을 모시고 「중국교회의 本色化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3. 방한 중국교포 전도를 위하여

12월 3일 중국교포 120여명을 대학생선교회 회관에 모시고 전도한 결과 40%이상 결신을 했습니다. 12월 10일에도 250명의 중국교포를 모시고 전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1) 한국 교회, 선교회, 단체가 방한 중국교포 선교를 위해서 협력이 잘 이루어 지도록...
- 2) 12월 17일, 18일, 19일에 방한 중국교포 400여명을 모시고 가질 전도 집회에 많은 결신자들이 있게 하시고, 물질 또 몸으로 봉사,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 3) 1단계 전도, 2단계 결신, 3단계 훈련, 4단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련의 연속전도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 지도도록...

4. 극동방송국을 위하여

극동방송을 통하여 수 많은 신자들이 성경공부, 제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 1) 한국교회가 전파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수 있도록...
- 2) 중국선교 방송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 3) 대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많

이 청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5. 중국대륙의 교회를 위하여

중국의 신도수가 나날이 놀랄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할 교역자가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 1) 중국내에 교역자 양성기관이 설립되어 많은 교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 2) 헌신된 중국교포를 국내로 초빙하여 훈련 받고 돌아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 3) 문화혁명으로 닫혀있는 교회들의 문이 열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6. 본 선교회 상임간사를 위하여

- 1) 상임간사들이 아침마다 경건훈련, 어학훈련, 성경공부, 중국문화 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를 위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 2)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김한성, 석귀희간사의 물질, 건강, 일정과 대륙으로 들어 가려고 준비하는 김한성간사의 수속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7. 회원을 위하여

- 1) 원은선 회원이 대만 중국인 교회 단기사역과 아울러 중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건강과 각 단체와의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 2) 사업교류를 통해 전문인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박동화회원 및 크리스찬 사업가를 위해...

8. 중국어문선교회회를 위하여

- 1) 각 부서별로 맡은사역이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 2) 물질로 선교하고자 작정한 회원들이 약속을 잘 지킬수 있도록..
- 3) 점차 선교회의 사역이 확장됨에 따라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도록...

9. 중국어문선교회 복음전도단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로 90년 11월에 복음전도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세워지자 마자 방한중국교포 전도에 큰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 1) 중국선교에 사명있는 전도 요원들이 많이 모여들도록..

- 2) 전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하고, 전도훈련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조직이 세워지고 전도, 양육, 모든 교육을 잘 배울수 있도록..
 - 3) 방한 중국교포들을 전도하기에 적합한 전도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10. 출판사업을 위하여
- 1) 중국선교핸드북의 순조로운 출판을 위하여...
 - 2) 기독교 토착화 관련 두번째 선교자료시리즈의 발간이 순조롭게 되기를...



1. 11월 28일 본 선교회 사무실이 종로2가에서 방배동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 10월 29일 본 선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 및 정기총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3. 11월 12일(월) 영락기도원에서 야외예배 및 간사협의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4. 11월 26일 정기세미나에 장규대 목사님께서 중국선교 현지사역보고를 하셨습니다.
5. 본 선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중국교포선교협의회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오후6시 - 9시 30분) 방한 중국교포 위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국교포 선교사역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물심양면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6. 두란노서원이 발간하는 월간지 「빛과소금」 1월호에 본 선교회 소개 기사가 실립니다.
7. 정기간행부에서 일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발간되는 “중국을 주께로”에 기자, 편집 하는 사람, 교정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달란트가 있는 분은 정기간행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동정

1. 11월 1일자로 김용배 전도사, 김준미 자매, 符志敏 자매가 협력간사로 상근하게 되었습니다.
2. 이의선 회원이 10월 서울대 동창회관에서 화축을 밝혔습니다.
3. 김구성 회원이 11월 남포교회에서 화축을 밝혔습니다.
4. 강정애, 윤명자 회원이 문화사절단 일원으로 북경아시아게임 참관 후 귀국 하였습니다.
5. 본 선교회 회원인 김태수 목사님이 마천동에 은혜교회를 개척 하셨습니다. (TEL: 449-5999)
6. 원은선 회원이 12월 11일 중화민국 台東으로 잠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한국어 강사로 출국 하였습니다.
7. 석귀희 간사가 1월 3일부터 台灣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편집 후기

본 선교회 사무실 이전, 학기말 레포트 제출, 한꺼번에 밀린 원고로 정신없이 서둘러야 했지만 “중국을 주께로” 제9호 편집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호에는 「특집」란을 신설해 본 선교회 복음전도단이 직접 참여했던 “방한 중국교포 전도”에 대해 실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육고를 보내주신 공항선교회 전덕용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호가 나오기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육고를 보내주신 본 선교회 각 부서, 여러 회원들, 타자를 도와 준 김준미 자매, 편집을 도와 준 박진완 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회지에 신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정기간행부에서 수시로 보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슴없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사랑과 관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 . . (석)

